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2016-42



2016년
교육정책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경남형 학력관 정립에 관한 연구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경남형 학력관 정립에 관한 연구

- 청출어람 -

연구진		
책임 연구자	박서연	용지초등학교
공동 연구자	신윤경	용지초등학교
	박진만	하천초등학교
	백연주	무학초등학교
	김현정	용지초등학교

- 목 차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4
- 2. 국내 시·도 교육청의 학력관 15
- 3. 2015 개정 교육과정 20
- 4. 시사점 22

III. 연구 방법 및 내용

- 1. 연구 조직 23
- 2. 연구 방법 및 절차 24
- 3. 연구 대상 28
- 4. 연구 내용 30

IV. 연구 결과

- 1. '경남형 학력관'의 설정 30
- 2. '경남형 평가관'의 설정 40

V. 결론 및 제언

- 1. 경남형 학력관 : '행복성장 학력' 53
- 2. 경남형 평가관 :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타당성 확보 55
- 3. 제언 55
- * 참고문헌 57
- * 부록(설문지) i

- 표 목차 -

<표 1> '자기 교육력'에서 '삶을 영위하는 힘'으로의 학력관 변화	4
<표 2> 평생교육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과 홀리스틱 평가특성 간의 비교	12
<표 3> 구성주의 관점	13
<표 4> 참학력의 의미와 세부 능력	15
<표 5> 경기도 역량 변천사	17
<표 6> 2015개정 교육과정과 충북 교육청의 핵심역량 비교	18
<표 7>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22
<표 8> 연구회 조직 현황	23
<표 9> 연구 추진 과정	24
<표 10> 전문가 자문 내용	26
<표 11> 연구의 절차	27
<표 12> 학교급별 설문 참가자	28
<표 13> 성별 설문 참가자	28
<표 14> 연령별 설문 참가자	28
<표 15> 교육 경력별 설문 참가자	28
<표 16> 교원 직위별 설문 참가자	29
<표 17> 담당교과별 설문 참가자	29
<표 18> 근무지별 설문 참가자	29
<표 19> 재직학교별 참가자	29
<표 20>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30
<표 21> 학교급별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31
<표 22> 교원 직위별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32
<표 23> 경남형 학력관 설정 전체 동의 정도	32
<표 24> 학교급별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	33
<표 25> 재직학교별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	33
<표 26> 경남형 학력관 네이밍	34

<표 27> 성별과 경남형 학력관 응답 비교 분석	35
<표 28> 경남형 학력관 네이밍(이름짓기) 기타의견	35
<표 29> 경남교육 미래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과 세부 설명	36
<표 30>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37
<표 31>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37
<표 32>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38
<표 33> 학력관에 대한 기타의견	39
<표 34> '성장참조 평가'로의 변화 동의 정도	40
<표 35> 학교급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41
<표 36> 교원직위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41
<표 37> 교과목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42
<표 38>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의 동의 정도	42
<표 39> 학교급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43
<표 40> 교원직위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43
<표 41> 교과목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44
<표 42>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44
<표 43>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45
<표 44>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평가혁신 지원방안	46
<표 45> '과정중심 수시평가'활용 동의 정도	47
<표 46> 학교급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동의 정도	47
<표 47> 교원직위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	48
<표 48> 교과목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	48
<표 49> '과정중심 수시평가'에서 필요한 추가 검토 사항	49
<표 50> 평가관에 대한 기타의견	51

- 그림 목차 -

[그림 1] 철학, 목표, 평가의 관계 정립	3
[그림 2]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31
[그림 3] 경남형 학력관 동의 정도	32
[그림 4] 경남형 학력관 네이밍	34
[그림 5]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37
[그림 6]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38
[그림 7]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38
[그림 8] '성장참조 평가'로의 변화 동의 정도	40
[그림 9]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의 동의 정도	42
[그림 10]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교사 지원방안	45
[그림 11]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45
[그림 12]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평가혁신 지원방안	46
[그림 13] '과정중심 수시평가'활용 동의 정도	47
[그림 14] '과정중심 수시평가'에서 필요한 추가 검토 사항	49
[그림 15] 경남형 학력관과 평가관의 정립	51
[그림 16] 경남 · 2015 개정 교육과정 · 충북 · 경기도의 역량 비교	52

<경남형 학력관 정립에 관한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어떤 의미인가? ‘학력이 뛰어난 학생’에서 ‘학력’은 시험 성적이 좋아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는 의미이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의 학력은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를 묻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학력’이 지적인 측면에서의 성취와 학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도 이런 의미에서의 ‘학력’이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마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무한 확장·경쟁 심화, 개인화·다원화 확산, 가상공간의 가치 증대, 디지털 휴머니즘 기술 발달,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신뢰’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는 이러한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는 동시에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전라남도 교육청(2014)은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장차 변화될 세상의 삶의 방식과 발생할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교육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보도자료 2016.02.26.)는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를 바탕으로 2014년 9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였고, 이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만으로 교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훈령 개정의 핵심내용은 학교장이 주도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바꾸면 과목에 따라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매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행평가의 방식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

제주도 교육청(보도자료 2016.03.31.)은 기존의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 100%로 선발하기로 방침을 발표했다. 내신은 교과 성적이 80%, 비교과활동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방침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다소 파격적인 변화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 교육청(2016) 역시 제6차 경남교육발전계획(2015~2018)에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형을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으로 규정하고 국외 교육 동향을 분석하여 기초학력 정책, 특수교육, 진로·진학 교육, 다문화교육, 안전교육 등을, 타 시·도 교육동향을 분석하여 평가방법 개선,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소통과 공감, 부적응학생 지원 등을 경남교육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행복학교 운영,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평가연계 배움 중심수업, 과정중심의 수시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복학교’ 일반화, 평가연계 배움중심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와 컨설팅, 교사 연수, 정책 연구, 자료집 배포 등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사, 학생, 학부모는 이에 대해 정책입안자와 철학적 이해를 같이 하고 있을까? 경남의 행복학교는 오히려 혁신학교를 둘러싼 이른바 ‘학력 논쟁’에 휩싸인 것은 아닌가?

지난 6월에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있었던 제2회 행복학교 포럼에서 봉명중학교 교사는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로 **학력관에 대한 재정립**을 들었다. 현재 우리의 학력관은 행복학교, 배움 중심수업의 철학과 가장 상반되는 전통적 학력관으로 현장에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식과 상충되며 동료교사와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2015년 제1회 행복학교 포럼에서 천보선 참교육연구소장은 “학력 논쟁에서 학력을 입시와 교과 성적으로만 보는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발달적 성취가 아닌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이 비교육적이고 비 본질임에도 잘못된 관행과 교육문화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에 대한 재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력에 대한 개념이 암기역량을 넘어서 협력역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여 진정 배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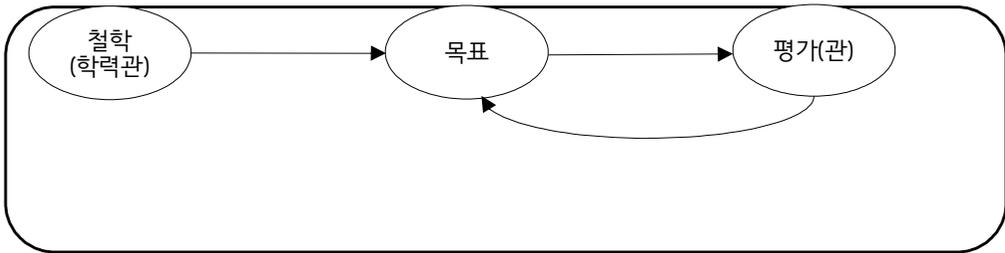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며 미래 사회를 창의적으로 주도할 인재를 기르기 위해 우리는 그 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학력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여러 정책 시행의 효과를 찾기에 앞서 학력에 대한 본질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학력관’의 정립이라는 철학적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인재상 변화에 적합한 경남지역의 학력관을 정립하고자 한다. 기존의 지식중심에서 능력과 핵심역량으로 변화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둘째, 경남 지역만의 특성화된 학력관(경남형 학력관)의 철학을 바탕으로 경남형 평가관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는 평가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철학≒목표=평가)



[그림 1] 철학, 목표, 평가의 관계 정립

연구문제는 철학은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철학은 목표설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결국 평가에 귀결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음과 두 가지를 설정하고자 한다.

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남형 학력관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구체적 목표를 위한 철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기본방향은 지식중심이 아니라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관점을 프레임으로 검토한다.

나. 경남형 학력관에 맞춘 경남형 평가관은 무엇인가?

이는 성장과정 중심평가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가. 일본과 스웨덴의 학력관

1) 일본의 학력관

일본에서는 1970년대 전후 교육의 인간화가 강조되며 특히 학습에서의 인간의 주체화를 목표로 하여 교육을 받는 사회(교육사회)로부터 학습하는, 학습할 수 있는 사회(학습사회)로의 이행이 강조되어 평생 학습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학력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학교폭력 등의 학교현장의 문제, 학생들의 놀이, 자연체험, 생활 체험 의 기회감소, 자립심, 자기통제력, 인내력, 동정심 등의 기분을 기르지 못하는 교육기능의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적 동향을 중시하기 위해 바람직한 학력관 모색에 주목하고, 지적 측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했던 종래의 학력관에서 탈피하여 평생교육체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함양해 나갈 수 있는 학력관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표 1〉 '자기 교육력'에서 '삶을 영위하는 힘'으로의 학력관 변화

구분	자기 교육력	삶을 영위하는 힘
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으로 배우는 의지, 태도 능력 • 지식이나 기능의 양적 학력관으로부터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한 자질 및 능력으로의 전환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덕·체의 세 측면으로 구성되고 그 세 측면의 조화 위에 길러질 것을 강조 • 지 :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덕 : 남과 협조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위로하는 마음 • 체 : 건전한 몸과 마음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의 학력관에 지식이며 기능 이라는 용어 없음 • 사고력, 판단력, 행동력, 문제해결력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학력으로의 전환 • 내용지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지로의 전환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교육력의 내용은 지적측면으로 계승됨 • 삶을 영위하는 힘은 자기교육력을 초월하고 있음 	

'삶을 영위하는 힘'의 특성 및 배경은 아래의 3가지 관점으로 정리한다.

첫째, 기초·기본의 철저를 지향하여 세 수준으로 나누었다. 1수준은 기본적 생활

능력으로서의 기초·기본이다. 읽기, 쓰기, 계산 등 각 교과와 기초적 지식·기능의 내용을 중요하게 다룬다. 2수준은 각 교과 등의 기본적 사항으로서의 기초·기본이다. 각 교과 등의 기본적 개념, 법칙, 구조 등의 내용지와 기본적 기술, 학습 기술, 학습 방법 등의 방법지를 다룬다. 3수준은 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기본이다. 판단력, 표현력, 문제해결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 방법 혹은 식견으로 이루어지는 지적능력과 자기 확립을 꾀함과 동시에 더불어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능력, 인간 이해의 의식이나 태도를 다룬다. 또한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건전하게 사는 건강 내지는 체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 전인적인 능력의 함양이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자질과 능력을 확대하고 보이는 학력(지식), 보이지 않는 학력(사고력, 판단력, 부드러운 감성)으로서의 자질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내용지(지식이해), 방법지(학습의 방법, 삶의 방법), 인간지(세 측면의 포섭)라고 하는 세 측면의 실천력과 행동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셋째, 인간의 주체성 획득이다. 변화하는 사회와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사회의 변화에 부응이 아니라 그 사회변화가 학생 자신에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냉정히 고찰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며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 자기 확립과 더불어 사는 것의 조화를 위해 개인의 확립과 공생을 강하게 요구한다.

위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삶을 영위하는 힘’을 함양하기 위하여 여유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을 목표로 교육내용의 엄선, 필수에서 선택으로, 흥미있는 교재 개발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합적 학습 시간(교과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 정보, 환경, 복지 등의 현대 사회의 과제만으로 편성한 경우, 횡단적 학습)을 창설하고 지도방법의 개선, 선택 이수폭을 확대하여 개성을 신장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을 하였으며 삶을 영위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의 형태로 문제 해결적 수업의 형태와 교사의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2) 스웨덴의 학력관

천호성(2016)은 스웨덴에서는 교육에서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관료적이고 비대한 국가기능을 분권화하고 하부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국가수준에서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학력을 일종의 ‘국제담론화’ 시키고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중심의 통제(자율, 분권, 질 관리)’를 하였다.

스웨덴의 학력관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책무성 점검 기제로서의 국가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둘째, 스웨덴 교육에서의 학력은 상당히 포괄적인 관점이며 다면적 발달을 중시하는 홀리스틱한 관점이 강조된다. 특히 공동체적 규범과 가치들이 부각되며 개별화된 학습, 교사 상호간 협력강조, 학생의 개별 학습 및 과제수행을 강조한다. 평가는 3단계 평정척도(통과, 우수, 매우 우수)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방식은 숫자에 의한 평정이 아니라 언어적이고 질적인 평가이며 언어적 척도는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간단하다.

셋째,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교육과정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평가를 보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지원, 학생의 강점과 약점 진단, 결과 수집을 통해 교육 목표 수행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시행 상의 기본적 특징은 해당 학년의 정규학기의 일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다면적 능력 평가를 위해 문제 유형을 그룹별 구술 평가 등 다양화시켰다. 또 출제 준비과정이 길고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분석된다.

나.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학력관

21세기의 상황과 학력관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공교육 제도는 대안교육, 재택학교, 사이버학교 등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박창언, 김회용, 차철표(2012)은 이러한 도전은 전통적인 교육 체제에 대한 재구조화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전통적 교육체제의 교육내용과 방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사회적 변화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신자유주의, 지식기반 사회 등의 용어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지식 기반사회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지식 교환, 확산, 재구성되는 것에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의존하게 되는 사회이다. 기존의 지식과 기능을 단순히 적용하는 단계를 벗어나 인간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협상 등의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식관의 변화는 곧 교육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학문중심 직업 교육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으로 변화한 것처럼 말이다. 또 교육관의 변화는 학력을 보는 관점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새로운

학력관은 학력을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많은 양의 지식을 체득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 표현력, 창조력 등을 강조한다. 관심과 의욕 및 태도 등도 함께 중요시함으로써 지식과 이해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인간의 오감을 활용함으로써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을 보다 중시하고 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위한 STEAM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도 등장하였다.

박창언, 김회용, 차철표(2012)는 이러한 학력관의 변화 중 주 5일 수업의 도입에 관하여 보면 아동의 학교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면서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를 포함한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력의 복원을 의미하며 학교 외 장소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장과 교육의 주체를 보다 확장시킨다. 가정에서의 체험을 통한 직접적이고 태도와 흥미 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력의 변화는 기존의 학력을 보는 관점에서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박창언, 김회용, 차철표(2012)는 주 5일 수업과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학력관에서 나타나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교과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가는 현재의 학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주 5일 수업제에서 추구하는 학력관과 같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으로 주 5일 수업제의 목표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부합한다. 또 현행 교육과정(2011.12)은 총 수업시수나 비 지적 교과의 시간배당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시간 배당 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이나 평가 등에서는 주 5일 수업제의 교육관이나 학력관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교과나 시간배당은 이러한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지적 교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주된 과제이다.

박창언, 김회용, 차철표(2012)가 제시한 주 5일 수업을 하는데 있어 학교 교육활동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 교과와 증감 모형은 교과내용의 재구성과 교육과정 압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한다.

둘째, 블록타임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교과 내용의 조직과 이에 적합한 수업방법의 동원은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주요한 동인이다.

셋째, 주 5일 수업에서 말하는 학력관에 부합되는 체험이나 표현력, 문제해결력 등을 중시할 경우 양적인 평가방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며 질적인 평가 방식이 권장된다.

넷째, 보다 풍부한 교육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학부모의 교육공동체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교육은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도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을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는 방향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의 장이 가정과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교육활동이 보다 풍부해지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보다 용이하게 전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창언, 김희용, 차철표(2012)는 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적인 교과와 활동이 가정과 지역에서의 생활적인 형태로 전개되어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교육현장의 교사, 각 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사 등의 참여에 의해 검토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지식중심 학력관에서 역량중심 학력관으로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과거 지식 중심에 기반 한 학력관은 이제 역량 중심의 학력관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황정규(2001)는 ‘21세기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길러야 할 학력의 성격’ 연구에서, 21세기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력은 ‘정보의 획득, 기억, 재생’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학업능력보다는 정보의 가치를 모종의 기준에 비추어 그 질과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 속에 종합하고 통합하는 능력, 전체 정보를 통제하고 제어, 점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정보와 지식체계를 창안하고 구상하는 능력, 직업·진로의식 함양 역량, 책임 있는 세계시민 역량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박철홍(2002)은 ‘암기위주 교육의 극복을 위한 대안 탐색’ 연구에서, 지식의 성격을 재규정함으로써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의 본질을 재분석하고 재해석했다.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은 삶의 내용으로서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식들을 재음미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식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고, 지식을 진리로 보는

관점에서 지식을 의미로 보는 관점으로 지식관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업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학습자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은 민주주의의 실험장, 체험장이 된다고 하였다.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은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연구에서,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보다는 지식의 적용과 활용이며, 특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노동 시장에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력, 새로운 기술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세계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용남(2008)은 ‘최근 지식관의 변화와 교육활동의 재구성’ 연구에서, 과거의 지식의 수용, 이해, 구성 수준을 넘어 지식의 증득을 새로운 지식 획득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제시했다. 역량이 지식에다가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고 일반적으로 정의될 때, 지식의 증득은 역량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지식의 증득을 위해서는 교육활동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강창동(2010)은 ‘학력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학교교육 측면에서 보면 학력(學力)은 학력(學歷)과 능력(能力)의 관계를 밝히는 인식의 토대이며, 학력(學歷)과 능력(能力)은 학력(學力)의 전제 위에 성립된 개념이다. 학력(學力)은 관점과 시공간의 위치에 따라 개념적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기에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 능력(能力)은 학력(學力)보다 포괄적 개념이며 학력(學力)은 학력(學歷)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의 실제적 능력인 학력(學力)이 능력(能力)을 보장하기 어렵는데 상징적 능력인 학력(學歷)이 능력(能力)을 보장한다는 것은 과학적 신비화가 만든 사회적 환상에 가깝다. 따라서 교육의 형식적 경력인 학력(學歷)이 신분과 지위의 사회적 지표가 되는 것은, 형식이 내용을 앞서는 가치전도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킬 것이다. 학력주의(學歷主義)라는 형식보다 학력주의(學力主義)와 능력주의(能力主義)라는 내용이 우선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는 바로 역량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승은(2015)은 ‘미래 학력 논의가 교육과정 연구에 주는 시사’ 연구에서, 대부분 미래 학력과 역량을 동일시하고 있다. 여기서 역량을 기르는 것의 기반은 교과이고, 교과는 역량이 발휘되는 다양한 맥락 중의 하나로 역량과 관련을 맺는다. 또한 역량은 교육의 과정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교과 고유의 개념과 원리와 이론들의 실천이며 역량이라는 것은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동안에 발휘되는 능력이거나 교과를 가르친 결과로 형성되는 능력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식 중심 학력이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될 수 없을 수 있다. 현재의 학력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주도하는 미래, 전 세계적 다원화가 성숙한 미래, 그리고 자원, 환경, 경제 분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도전이 상시화 된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없으며, 새로운 형태의 미래 학력으로 역량 중심 학력관이 미래 사회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과거 지식중심의 학력관은 이제 역량 중심의 학력관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서 교육의 주요 기능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들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사회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핵심적인 역량 함양을 위한 학력관(교육목표 설정), 평가관(교육목표 달성여부 확인),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등의 일원화된 철학의 구상과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

타일러의 전통 교육과정 모형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목표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평가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타일러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네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야한다. 첫째, 학교는 어떤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 둘째,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셋째, 선정된 교육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넷째,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다.

첫 번째 단계인 교육목표 설정에서 목표추출의 원천은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 사회적 요구, 각 교과가 갖고 있는 교육적 기능이다. 목표선택의 준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중요한 목표들을 정선하고 학습 심리의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 목표를 진술할 때에는 ‘내용과 행동’이 모두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 경험의 선정이다. 학습경험이란 학습자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의 여러 외적 조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뜻한다. 경험 선정의 다섯 가지 원칙은 기회의 원칙, 만족의 원칙, 가능성의 원칙, 다 경험의 원칙, 다 성과의 원칙이다. 이 다섯 가지를 원칙으로 하는 학습 경험의 예로 지식을 위한 학습경험(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다른 지식의 습득을 돕는 기능적 가치가 있을 때), 사고력을 위한 학습경험(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사회적 태도를 위한 학습경험(바람직한 태도 학습), 흥미를 위한 학습경험(새로운 자료와 활동으로 다양하게 유지, 발전) 등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습 경험의 조직이다. 조직의 원리는 중요한 경험요소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조직하는 계속성, 점차 경험의 수준을 높여 폭넓은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열성, 학습경험을 횡적으로 조화롭게 연결 지어 조직하는 통합성이 있다. 조직의 구조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조직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학습 성과의 평가이다. 평가의 준거는 교육목표이며 평가를 통해서 밝혀야 할 사항은 교육목표의 달성도이다. 평가는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판별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의 절차는 먼저 교육목표를 확인한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확인하는 작업이다. 다음으로 평가 장면을 선정한다. 교육목적에 나타난 행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의 선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도구의 제작이다. 기존의 평가도구들 중에서 알맞은 것을 선정하거나 평가도구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평가 도구에 따라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높아진다. 평가 결과는 학생의 변화 정도나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활용하며 평가 결과의 원인을 추적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는 분명한 교육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또 평가의 결과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확보할 수 있다.

마. 평가관

1) 홀리스틱 평가관

허영주(2015)의 평생교육 평가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평가방식으로 홀리스틱 평가관을 도입해야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평생 교육의 성격과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를 하려면 상황적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발달적 평가관에 기반을 둔 변용적 평가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다문학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평생 교육의 접근 방식은 평생 교육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평가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양적 평가방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학습자와 전문가의 형식적 참여로 이어져 학습자의 전인적 측면의 변화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홀리스틱 평가관이란 평생교육 평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평가 방식이다. 과정 지향 평가이며 양적 및 질적 평가 자료를 혼합 활용하는 평가이다.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였으며 전인적이고 영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또한 발달적 평가관에 기반을 두고 다원적 상호 의존적 평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허영주(2015)는 전통적인 평생교육 평가방식 즉, 성과 중심의 양적 평가로 인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발달적인 평가관의 활용, 혼합적(양적, 질적) 자료 수집방식의 활용,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한 지속적 프로그램의 개선, 다양한 구성원들(학습자, 프로그램 제공자, 지역사회)의 평가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와 전문가의 형식적인 평가 참여가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용적 평가를 위해 양적 평가자료와 질적 평가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학습자, 평생교육 관계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판단해야 한다.

<표 2> 평생교육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과 홀리스틱 평가특성 간의 비교

연구에서 추출한 평생교육의 특성	평생교육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	홀리스틱 평가의 특성
전 생애를 통한 계속적 학습	성과중심의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질 개선에 목적을 둔 평가	과정지향 평가 가능함으로써 교육의 질 개선의 가능
제도적 제한을 넘어 모든 자원 재편	양적 및 질적 평가자료의 종합적인 활용	양적 및 질적 평가자료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혼합적인 평가가 가능
변화에의 적응성과 다양한 선택권 제공	성과 중심의 양적 평가보다는 환경적 맥락을 함께 파악하는 평가방식	사회 전체와 실세계 평가를 통해 환경적 맥락까지 평가가 가능
전존재로서 변혁을 지향하는 인간 형성 교육	전달적 및 교류적 평가보다는 변용적 평가에 초점	전인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평가를 통해 변용적 평가가 가능
인생 각 시기에 맞는 교육 목표 설정 및 목표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의 제공	발달적 평가관에 기반을 둔 평가	발달적 평가관을 전제로 함으로써 성장지향 평가가 가능
목적, 내용의 설정에 성인 학습자 및 다양한 전문가의 활용	학습자 및 평생교육 관계자,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한 평가	다원적 상호 의존적 평가를 통한 다학문적 평가가 가능

2) 역동적 평가관

구성주의적 평가관에 따른 역동적 평가의 원리와 적용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주의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이다. 김정환, 권향순(2010)에 의하면 구성주의 학습이란, 자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지식을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구성주의적 평가는 개인의 다중적이고 다양한 사고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격려하여 새로운 상황에의 개별적 및 집단적 정보 적용능력을 중시한다. 과정 중심의 평가란 학습 촉진자, 중재자로서의 교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학습자, 맥락적 학습을 유도하는 실생활 과제 제시, 구성원 간 상호작용 기회 확대,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 역동적 평가는 학습활동 개선 및 지도·조언, 학습자에게 보다 정밀한 진단 자료를 제공하여 잠재 능력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가능한 한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절한 도움이나 안내를 주는 것이다.

김정환, 권향순(2010)은 구성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개인적 목표를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학습자에게 적합하며 의미 있는 지식이나 지적 망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학습 과정의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평가와 교수 중재를 함께 수행하는 평가인 역동적 평가는 구성주의의 학습과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표 3> 구성주의 관점(김정환 외 1명, 2010)

구분	구성주의 관점
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론이 보여준 가능성을 구체화하거나 난점을 극복하려는 많은 연구
피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생물학적 이론과 사례연구방법을 토대로 자신의 독특한 발생학적 인식론 구성
비고츠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아동이 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 • 근접발달영역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제안 -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교사나 우수한 동료의 도움을 받아 학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영역 • 학습자는 교실이나 학교 등 학습 환경에서 수동적으로 교사의 강의나 설명 중심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보다 학습 활동이나 실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정보나 사실 또는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 • 현재의 인지구조와 새로운 학습 자료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동화나 조절 작용에 의한 재구성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의 조력을 받아 학습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 내재적 논의(생각하는 논의): 학습자는 교사와 급우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 → 자기주도적인 질문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 발달 → 학습자의 지적 및 초인지적 능력 발달

김정환, 권향순(2010)은 구성주의적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성취 결과 평가와 함께 학습 과정도 평가한다.

둘째, 학생능력 향상과 관련된 의미를 강조한 평가, 상황적 문제의 평가, 복합적 기능의 평가, 개인적 학습속도와 성장정도를 평가한다.

셋째,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다양하고 독특한 성취수준과 능력 수준을 고려한다.

넷째, 개별 학생 평가와 집단 평가를 조화롭게 활용한다.

다섯째, 사실적 지식, 개념 및 원리의 이해력을 평가함은 물론 비교, 분석, 일반화, 예측, 가설검증 등 비판력과 고차적 사고기능을 평가한다.

여섯째,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활용하며 수행의 타당한 평가 준거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유의미한 지식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측정하여 발달에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김정환, 권향순(2010)은 구성주의 관점에 입각한 역동적 평가방법의 목적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진단과 예측, 중재 지향적인 임상적·안내적 학습지도 활동, 학습자가 당면한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맞춤형 중재를 하는 것이며 역동적 평가 방법은 먼저 학습자의 발달과 행동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근접발달영역과 비계학습 원리를 활용하는 평가가 되어야한다주장하였다. 역동적 평가에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제작, 사용하되 질적 평가를 병행하는 통합적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근접 발달 영역을 확인하여 중재자가 안내하고 힌트제공 등의 조력을 받아 학습자의 학습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정확히 측정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참된 인지 기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교수 효과까지 확인하여 개선한다. 이렇게 개별 학습자에게 정밀한 진단 자료를 제공하며 학습자가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터득하기 어려워서 적절한 중재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역동적 평가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효율성의 문제이다. 평가자의 더 많은 훈련과 경험, 기술이 요구되며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경험은 필수가 된다. 이때 수업 목표와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계획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교재연구와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 것도 역동적 평가를 활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현장 학교에서는 표준지향 평가(상대평가)와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의 목적을 도외시키고 형식적인 평가가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 개별학생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여 지도, 조언하고 교수 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를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교육평가 전문가와 내용 전문 학자 및 현장 교육자가 공동 노력하여 구체적인 교과목을 선정하고 구성주의적 평가관에 기초해서 실용적이며,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효율적인 역동적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국내 시·도 교육청의 학력관

가. 전북교육청의 학력관

전북 교육에서 생각하는 핵심역량은 기능적 측면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적이자 사회적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참 학력’을 제시하여 공교육의 정상화 실천과 지적성취, 정의적·사회적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참학력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북의 학생을 어떻게 길러내고 싶은가?’를 초점으로 하여 전북 교육 목표 및 그에 따른 인간상, 전북 교육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 선발, 전북 교육 핵심 역량 지표 기준, 현재 학교 현장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논의를 하였다.

2015년 개정된 ‘참학력’의 의미는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다. ‘모든 학생의 배움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교육,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철학적 의미로 두고 있으며 지식위주의 학력을 넘어서서 지식, 태도, 실천을 조화시켜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기르는 학력이다.

참학력의 의미와 세부 능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참학력의 의미와 세부 능력

의미	세부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은 기존의 학력과 구분 짓기 위한 방편 • 학력은 학습역량을 의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험보고도 남는 것이 참학력 • 역량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 • 대입수단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업을 잘할 수 있는 학력 • 학력의 기준 및 목표치가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습, 자기주도적 학습력 • 교과기초 지식 내면화, 응용력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 타인배려 협력 능력 • 강건한 체력과 감성

참학력의 구현방향은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고 협력과 토론으로 생각을 키우고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수업으로 지적인 발달과 인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전복 학생의 통합적 지식, 성숙한 태도, 적극적 실천을 통해 자기 삶을 행복하게 가꾸고 공동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의 성장이다.

나. 경기도 교육청의 학력관

경기도 교육청(2016)의 경기도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따르면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평가는 참된 학력 신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때 참된 학력이란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한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총체적 능력이란 교과 지식,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지적능력과 성취동기, 호기심, 자기관리 능력, 민주적 시민가치 등의 정의적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능력을 뜻한다.

둘째, 교과 학습 발달상황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일제식 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16학년에는 1학년과 2학년, 2017년에는 3학년과 4학년, 2018년에는 5학년과 6학년으로 순서를 정하였다.

넷째, 학교는 성장중심의 평가를 구현한다. 서열화와 점수화가 목적이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균형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 피드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평가 및 관리 면에서는 인성에 중점을 두는 정의적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인지적 능력에 치우쳤던 평가 패러다임을 벗어나 교육과정을 통해 지도한 정의적 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경기도 교육청(2015)이 경기도 교육과정 체계 재정비 및 측정도구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밝힌 기존의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은 교육과 실제 삶의 관련성을 높이는 교육을 요구하며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 또한 기존의 경기교육에서 경기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의 육성과 창의 지성 교육(지성교육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목표인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때, 창의 지성 역량이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활동을 함으로써 지식을 소화하고 스스로 높은 차원의 지혜와 지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다. 이러한 창의 지성 역량을 경기 교육청에서는 2011년 처음 선정하고 2012년에 초기의 창의성 구성요소로부터 핵심 역량을 추출하는 것에서 확대하여 공공성의 가치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역량으로서 개정하였다. 창의지성역량의 문제점은 추구하는 인간상이 모호하고 철학적 비전이 약하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만 나열하여 현실과의 괴리가 생겼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맞는 인재상 설정이 필요해졌다.

<표 5> 경기도 역량 변천사

범주	재정비안	창의지성역량 (2012)	창의지성역량 (2011)
자율적 삶	긍정적 자아 역량	-	-
	자주적 행동 역량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 관리 능력	-
공동체적 삶	의사소통역량	의사소통능력	-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협력적 문제발견·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민주시민 역량	문화시민 의식 문화소양 능력 중 일부	민주시민의 가치와 책무성 리더십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 역량	-	상상력
	비판적 성찰 역량	-	통찰력
-	-	문화적 소양 능력	문화적 창조력 건설적 생활능력

경기도 교육청은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재정비안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대표역량을 제시하였다. 문화소양 역량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역량의 일부로 수용하였다. 자주적 행동역량은 기존의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생활을 관리한다는 좁은 의미에서의 자기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환경을 고려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력까지 포함하였다. 긍정적 자아역량은 자신이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되므로 첨가하였고 민주시민의식에서 민주시민 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량은 상호 연계되어 작동되며 총체적 구조 속에서 균형 있게 역량을 계발할 수 있게 한다.

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력관

충청북도 교육청(2015)의 충북형 미래학력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는 미래

전망과 교육의 변화, 중복형 미래학력의 개념정립,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혁신 방향탐색, 중복형 미래학력의 인프라 구축 방향 탐색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기존 학력의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교과 학습의 성과로서의 학력, 학습을 통해서 길러진 마음의 성향으로서의 학력, 평가적 개념으로서의 학력과 수업적 개념으로서의 학력이었다. 기존의 학력에서 중복형 미래 학력을 개념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세 가지 물음이 필요했다.

첫째, 무엇을 위한(for what) 학력인가? ①지속가능성 ②공동선의 추구 ③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④모두의 성장과 자기실현 ⑤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웰빙 ⑥의미

둘째, 누구를 위한(for whom) 학력인가? ①모든 아동들에게 의미가 있는 학력 ②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학력

셋째, 우선으로 필요한(what priorities) 학력은 무엇인가? ①사회 적감성 역량 ②자신감 ③윤리의식 ④자기조절 능력 ⑤자기주도성 ⑥학습능력 ⑦협업능력

중복형 미래학력의 목적은 배움을 즐기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이며 그 내용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움을 즐기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 사회적 감성능력이다. 미래 학력의 터전으로는 자기주도적인 배움과 성찰적 가르침이 살아있는 교실, 공공성에 기반하여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용되는 학교, 모두가 자신의 삶을 빛도록 지원하는 더 큰 배움터로서의 사회를 설정하였다. 또한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도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표 6> 2015개정 교육과정과 중복 교육청의 핵심역량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복 교육청의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자기주도 학습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정보활용능력/비판적 사고능력/문제발견 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성
심미적 감성 역량	문화적 소양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역량	대인관계능력/시민의식

충북 교육과정 혁신의 방향은 미래학력으로 명명하였다. 미래학력이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갖추어야 할 능력, 즉 역량을 말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궤적 또는 아이덴티티로 구성할 수 있는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총체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학생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핵심 전략이므로 현장 교원들의 문해력과 재구성 역량 신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성이 중시되며 학교장과 교감이 민주적인 교육과정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 방향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전달하고 암기하는 교수-학습에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으로 한다.

둘째, 하나의 역량을 기르는 단일한 교수-학습에서 다양한 역량을 통합적으로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으로 한다.

셋째, 교사 개인의 교수 능력 신장에서 교사 공동체의 교수능력 신장으로 다가가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중심학습, 협동학습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수 학습 혁신을 위하여 교사들의 전문적 자원을 신장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한다.

평가 부분에서도 혁신을 하기 위해 방향이 고려되었는데 과정중심의 평가로서의 형성평가와 수행평가(학습정보의 송환과 교정), 성취 기준 중심 평가(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부합), 성장참조 평가(학업 증진 기회를 부여하며 개인화를 강조하는 평가) 이상 세 가지이다. 이러한 평가 혁신을 위한 지원으로는 평가 교수 학습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평가의 방법과 내용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고 전인적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평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제공도 중요하다.

충북형 미래 학력의 인프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이다. 학교의 돌봄문화를 사회정의 교육이라 생각하며

학교의 배움문화는 학습공동체로 본다. 학생과 학생, 지역사회, 학부모, 자연세계,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돌봄과 배움을 위한 생태적 학교의 상호지원체계를 구성한다.

둘째, 공감과 소통문화이다. 공감과 소통을 통한 학교 생활 지도 혁신을 추구한다. 교사 및 학교,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에게 다양한 연수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셋째, 공 참여 교육복지이다.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 속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적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어도 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공통의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배제되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공적행위이다. 공참여 교육복지 모형은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주체로서 모두의 나눔을 요구한다.

넷째, 생태적 감수성이다. 생태주의적 교육방법론으로서 협동학습을 주축으로 하며 '상생관계'를 강조해 생태적 감수성 교육 시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은 미래 사회에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보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택, 조정,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의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습득이 강조되면서 학생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둘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처리 역량

셋째,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넷째,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섯째,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여섯째,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초 1~2학년의 수업시수가 증배된 것이다.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수업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학교 돌봄 기능 확대에 대한 학부모 요구 등을 감안하여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초 1~2학년에 한글 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한글을 착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현행 27차시에서 62차시로 강화하였으며, 국어, 초등통합, 수학의 읽기·쓰기 활동을 1학년 2학기부터 늘리는 등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초 1~2학년 '국어활동' 교과서는 한글 읽기, 쓰기 활동 등을 강화한 워크북 형태로 개발한다.

또 하나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안전교육이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초 1~2학년은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신설(주당 1시간)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운영한다. 이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등 일반 교과와의

연계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 ‘안전한 생활’의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으로 주제 중심, 체험 중심으로 안전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일반 교과와의 통합 학습도 가능 하도록 하였다. 초 3~6학년까지는 체육, 실과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표 7>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수학 256	272	272
	수학	바른 생활 128	272	272
	과학/실과	즐거워 생활 192	204	340
	체육	즐거워 생활 384	272	272
	예술(음악/미술)		136	204
	영어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272→224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680→1,744	1,972	2,176

4. 시사점

타 시도 교육청의 학력관, 일본과 스웨덴의 학력관, 평가관의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육 단계별, 교육 유형별로 일관되게 포섭, 통합할 수 있는 학력관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또 새로운 학력관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내실있게 구현하는 방법을 논의하여야 한다.

둘째, 학력에 대한 개략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무엇을 알고 있느냐(획득형 학력)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느냐(출력형 학력)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에서 교과와 핵심역량 간의 적절한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 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천호성, 2016).

셋째, 경남형 학력관을 설계할 때 학력관과 평가관을 구분하고 외국의 사례처럼

국가 중심의 평가체제를 수용하거나 다른 평가 체제로 할 것인가의 고민을 하게한다. 과연 경남형 평가 체제의 도입이 실효성이 있는지,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넷째, 국내의 학력관 사례를 보면 전통적 학력관과 지식기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미래형 역량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남형 학력관을 설정할 때 미래에 필요한 모든 가치있는 역량도 결국 ‘지식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 평가 관리 지침이 경남에 비해 좀 더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평가 목적이 뚜렷하고 그에 따른 평가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때 체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되 지역에서 강조해야 할 인프라를 구축하여 역량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경남형 학력관을 설정할 때에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두고 경남의 환경에 더욱 밀접하고 경남 교육 정책과 연결시켜 핵심 역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조직

본 정책 연구를 위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직교사 5명으로 정책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8> 연구회 조직 현황

순	구분	성명	역할
1	회장	박○○	연구계획 수립, FGI 및 연구 총괄 등
2	총무	백○○	회계처리, 자료수집, 설문내용 분석 등
3	회원	김○○	선행연구 문헌분석 및 설문, 내용 정리 등
4	회원	신○○	타 지역 사례분석 및 설문, 내용 정리 등
5	회원	박○○	설문 통계분석, 보고서 취합 등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회 시기별 연구회 활동 추진 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 9> 연구 추진 과정

시기	추진 과정
4월	- 활동 계획 수립, 연간 운영방향 논의 - 연구회 내 역할 분담 및 선행연구 - 과제: 선행 연구 문헌 수집 및 분석
5월	- 선행 연구를 통한 연구 방향 논의 - 국가수준 교육과정, 경남교육정책 분석 - 과제: 경남 교육에 적합한 역량 선정 준비 - 1, 2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경남형 학력관 논의와 핵심역량 1차안 도출
6월	- 1, 2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경남형 평가관 논의 - 설문지 작성 -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한 설문지 수정(파일럿 테스트 실시)
7월	- 설문지 완성 및 설문조사 실시 - 설문 결과 통계 및 결과 분석 - 국내·외 학력관에 대한 인식 및 동향에 관한 경기 학력관 포럼 참석
8월	- 통계를 바탕으로 경남교육 핵심역량 선정 및 연구 결과 도출 -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컨설팅을 통한 수정·보완
9월	- 연구 활동 분석 및 평가 - 보고서 검토 및 최종 수정 - 연구 발표회 준비

가. 문헌 및 실태 분석

먼저, 국내·외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문헌분석은 첫째, 학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변환 배경에 대한 논의, 학력관에 대한 국내외 연구, 홀리스틱 평가관과 구성주의 평가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하였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교육단체에서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중심 학력관으로 전환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었다. 앞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경남형 역량중심 학력관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남교육이 아무리 올바른 학력관이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학력을 측정하는 평가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측면에서 학력관 정립과 평가관의 정립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연구의 방향을 수정하여 설정하였다.

실태분석은 교육부(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경남교육청(경남교육목표 및 경남의 미래 인재상 등), 전북교육청, 경북교육청 등을 비롯한 타 지역 교육청 및 지역자치기관, 유관기관의 실태를 법령, 지침, 훈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례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교육부와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에 반영중인 타 시·도교육청의 핵심역량들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역량을 찾고 경남교육의 특색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경남교육의 특색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설정하는데 참고하였다. 또, 경남교육청과 여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비교하여 평가의 올바른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활용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연구회 회원, 교육경력 20년의 연구학교 연구부장 A교사, 교육경력 18년의 연구부장 B교사, 교육학 박사 C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3차례 진행하였다.

1차 협의회(5월 중순)에서는 역량이 중시되는 전반적 사회 분위기,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이를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남교육 정책 제언 자문 등 연구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행복학교나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학생의 '성장'이나 '공동체', '배움'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이론적 토대나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차 협의회(5월 하순)에서는 경남 교육과정 핵심역량 1차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앞서, 문헌분석에서 나온 다양한 핵심 역량과 더불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학교현장에서 지도되어야 할 역량, 경남 교육목표와 미래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등을 논하였다. 협의를 통해 제시된 역량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역량을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추출된 역량을 교육목표와 미래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크게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창조적 역량 3개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별로 4개씩, 총 12개의 경남 교육 핵심역량 1차 안을 선정하였다.

3차 협의회(6월 중순)에서는 경남교육이 역량중심 학력관을 따를 때 평가관이 가야할 방향을 논의해보았다. 타일러의 교수학습 모형에 입각해 살펴보면 학력관을 정립되면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설정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도 정해진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기보다 '과정', '성장'을 평가하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역동적 평가관이나 홀리스틱 평가관을 따르는 흐름이 강하다. 경남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해 과정중심 수시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과정중심 수시평가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등도 과정중심 수시평가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정책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최근 평가관 변화 및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조사, 현실적인 평가혁신 지원 방안, 그 밖에 평가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평가관 정립의 시작임을 협의하고 1~3차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작성하였다.

다. 파일럿 테스트 실시 및 설문지 수정(1차 타당도 검증)

설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회 회원 및 도내 초등학교 A교사, 중학교 E교사, 고등학교 F교사, 교육학 박사 C, 교육학 박사 G가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해 설문지에 대한 1차 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파일럿 테스트 과정을 통해 연구내용과 설문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검토하여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표 10>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자문 내용
<p>○○초등학교 교사 A</p>	<p>- A파트 학력관 정립 설문 시작 전에 현재 경남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안내 또는 고민을 하는 문항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래 글은 2016.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3p)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2016)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이란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건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며, 둘째, 소통과 공감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 및 가치를 창출·활용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다.</p> </div> <p>저 문구에 보니 우리 경남이 지향하는 인간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 인간상에서 학력관을 출발하는 것이 바른 접근인 듯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상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가치(배움, 도덕적 사람(인성), 소통, 공감, 지식과 정보 및 가치 창출, 자아 실현, 발전에 이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항목이 추가되면 어떨지라고 제안해 봅니다.</p> <p>- 저에게 인쇄해 주셨던 종이에 있던 추가 설문내용도 추가되며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반영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새롭게 추구하는 학력관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p> <p>- 올해 배움중심수업의 방향이 평가연계 배움중심수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취지 자체가 수업과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평가 중심적인 수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성장과 발달중심의 학력관과 평가관과 부합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p>
<p>교육학 박사 C 교육학 박사 G</p>	<p>- 12가지 경남형 미래역량에 따른 세부역량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되었으면 합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세부역량에 제시된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p> <p>- 이 설문을 초등뿐만 아니라 중, 고교에도 배포하실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초등평가관이 아니라 초중고 평가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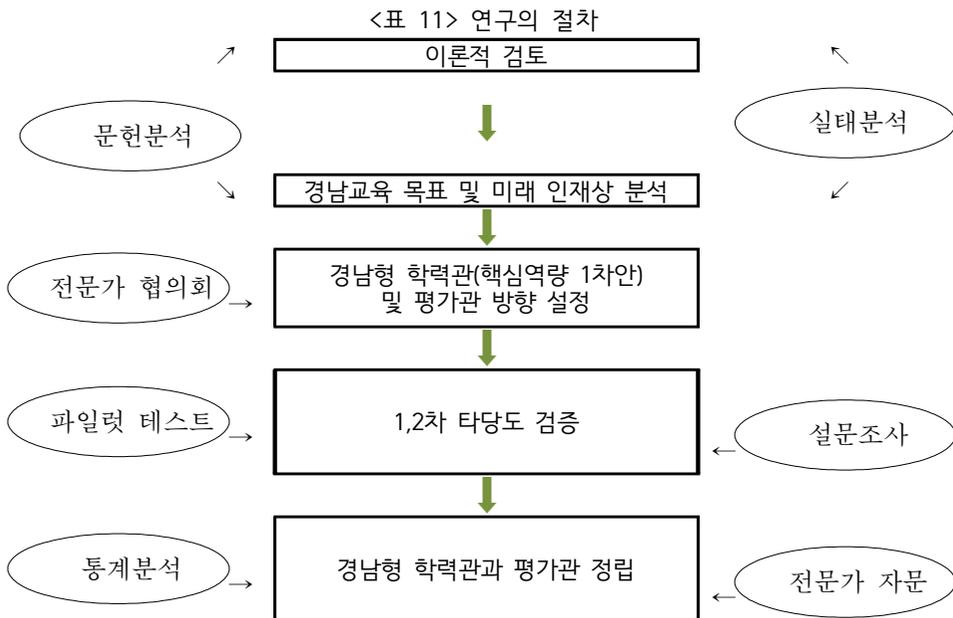
	<p>- A파트 1-1번, 2-1번, B파트 1-1번, 2-1번 문항에서 『④, ⑤에 √하신 분은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답변하실 사람이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히려 각 문항과 관련된 기타 의견을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p> <p>- B파트 3번 문항 『핵심입니다』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로 변경이 바람직할 것 같은요. 왜냐하면 단정적 표현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이죠. 만약 단정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p>
--	---

라.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2차 타당도 검증)

설문조사는 연구회의 문헌분석과 실태분석을 통한 연구내용과 토론·협의를 통해 도출된 경남형 학력관, 평가관에 대한 2차적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고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실시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을 통해 비율을 검증하였다. 둘째,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스퀘어 검증을 이용하여 질적 범주 간(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차이를 통한 유의미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은 두 개의 그룹 또는 세 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질적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양적 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에 따른 유의미성을 파악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여 연구 추진 절차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연구 대상

연구는 정책연구회 회원 5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가 및 도내 초·중·고등학교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대상자 중 673명이 온라인 설문(SurveyMonkey)에 참여하였다. 설문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초기 예상치보다 설문응답 비율이 높고 응답자가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이 서술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학력관과 평가관에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설문대상을 기초사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학교급별 설문 참가자

학교급별	응답 빈도(N)
① 초등학교	336
② 중학교	194
③ 고등학교	145
합 계	673

<표 13> 성별 설문 참가자

성 별	응답 빈도(N)
① 남	318
② 여	356
합 계	673

<표 14> 연령별 설문 참가자

연 령	응답 빈도(N)
① 20대	65
② 30대	167
③ 40대	182
④ 50대	229
⑤ 60대 이상	32
합 계	673

<표 15> 교육경력별 설문 참가자

경력 구분	빈 도
① 5년 미만	96
② 5년 이상~10년 미만	76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107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81
⑤ 20년 이상	315
합 계	673

<표 16> 교원 직위별 설문 참가자

직위 구분	빈도
① 교장	49
② 교감	80
③ 수석교사	7
④ 부장교사	192
⑤ 일반교사	345
합 계	673

<표 17> 담당교과별 설문 참가자

교과 구분	빈도
① 국어	84
② 영어	57
③ 수학	58
④ 사회(역사 포함)	58
⑤ 과학	67
⑥ 기술·가정	32
⑦ 체육	27
⑧ 음악	18
⑨ 미술	19
⑩ 진로	12
⑪ 도덕(윤리포함)	24
⑫ 초등	260
⑬ 한문	10
⑭ 제2외국어	1
⑮ 기타	48
합 계	673

<표 18> 근무지역별 설문 참가자

근무지역 구분	빈도(N)
① 도시(동)	365
② 농어촌(읍면)	309
합 계	673

<표 19> 재직학교별 참가자수

재직학교 구분(중복)	빈도(N)
① 행복학교	21
② 행복맞이학교	54
③ 두드림 학교	98
④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50
⑤ 일반학교	525
합 계	748

4. 연구 내용

가. ‘경남형 학력관’의 설정에 관한 내용

미래의 지식기반정보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적합한 ‘역량중심 학력관’에 관한 내용, ‘경남형 학력관’ 설정의 필요성 및 네이밍, 경남교육발전계획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을 연결 짓는 내용 등으로 정하였다.

나. ‘경남형 평가관’의 설정에 관한 내용

평가관의 변화에 따른 의견을 묻는 내용, 교사의 평가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실행을 위한 교사지원 방법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평가혁신을 위한 지원, 현재 경남의 평가 방향인 과정중심 수시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경남형 학력관’ 설정

가. 역량중심 학력관¹⁾ 동의 정도

1) 전체(N=673) 동의 정도

미래의 지식기반정보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일반적인 학력관(단순 암기위주, 서열화와 선발 등이 목적인 기능주의)에서 ‘역량중심 학력관’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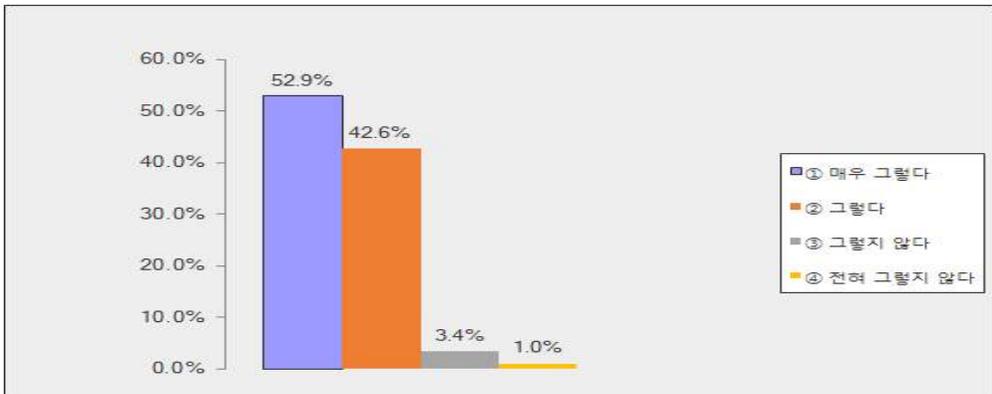
역량 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는 긍정응답률이 95.5%로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응답 구분	응답률(%)	빈도(N)
① 매우 그렇다	52.9%	356
② 그렇다	42.6%	287
③ 그렇지 않다	3.4%	23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	7
합 계		673

***: p<.001, **: p<.01

1)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 삶의 주체성 신장 목적 등의 학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적인 정의를 한다.



[그림 2]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2) 학교급별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학교급별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동의도(M=3.58)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동의도(M=3.3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는 입시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비해 지식 전달 중심의 학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학교급별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1. 초등학교	341	3.58	.566	11.241**	1-2***
	2. 중학교	192	3.36	.607		
	3. 고등학교	140	3.36	.700		
	합계	673	3.47	.617	*	1-3**

***: $p < .001$, **: $p < .01$

3) 교원 직위별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교원 직위별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교장과 일반교사, 교감과 일반교사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장의 동의도(M=3.65)가 일반교사의 동의도(M=3.3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감의 동의도(M=3.69)가 일반교사의 동의도(M=3.3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관리자의 경우 일반 교사보다 미래 지향적인 역량중심의 학력관에 관한 연수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았고 이에 따른 학력관의 변화를 인지해 왔기 때문에 더 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22> 교원직위별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역량중심 학력관 동의 정도	1. 교장	49	3.65	.597	6.715***	1-5* 2-5***
	2. 교감	80	3.69	.518		
	3. 수석교사	7	3.86	.378		
	4. 부장교사	192	3.51	.570		
	5. 일반교사	345	3.37	.649		
합계		673	3.47	.617		

***: p<.001, *: p<.05

나.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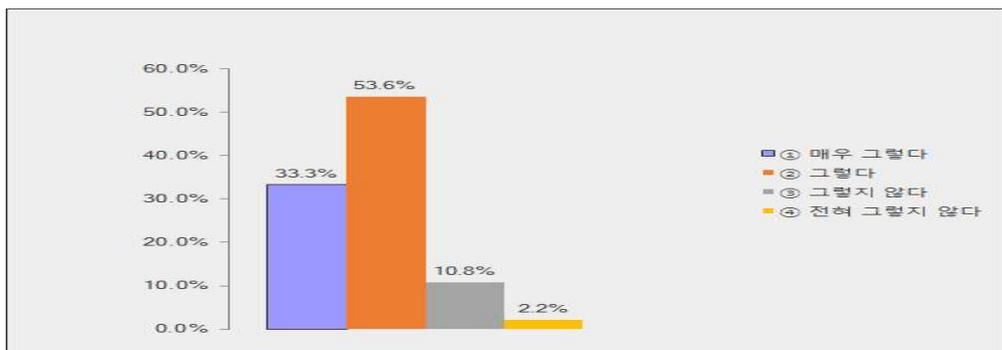
1) 전체 동의 정도

역량중심의 학력관'을 반영하여 최근 각 지역별로 경기교육청은 '창의지성역량', 전북교육청은 '참학력', 충북교육청은 '미래학력'등을 설정하여 각 지역의 특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학교, 안전교육, 환경생태교육 등을 중시하는 경남교육청에서도 '경남형 학력관'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는 긍정응답률이 86.9%로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경남형 학력관 설정 전체 동의 정도

구분	응답률(%)	빈도(N)
① 매우 그렇다	33.3%	224
② 그렇다	53.6%	361
③ 그렇지 않다	10.8%	73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2%	15
합 계		673



[그림 3]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

2) 학교급별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

학교급별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동의도(M=3.25)가 중학교의 동의도(M=3.1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4> 학교급별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경남형 학력관 동의 정 도	1. 초등학교	341	3.25	.707	3.409*	1-2*
	2. 중학교	192	3.10	.698		
	3. 고등학교	140	3.12	.704		
	합계	673	3.18	.706		

*: p<.05

3) 재직학교별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 (중복체크)

재직학교별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행복맞이학교와 두드림학교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행복맞이학교의 동의도(M=2.94)가 두드림학교의 동의도(M=3.37)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5> 재직학교별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경남형 학력관 설정 동 의 정도	1. 행복학교 ²⁾	21	3.24	.768	2.970*	2-3**
	2. 행복맞이학교 ³⁾	49	2.94	.899		
	3. 두드림학교 ⁴⁾	79	3.37	.624		
	4. 교육복지우선학 교 ⁵⁾	35	3.26	.657		
	5. 일반학교	470	3.17	.694		
	합계	654	3.19	.708		

** : p<.01, * : p<.05

- 2) 행복학교: 경남형 혁신학교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로 공교육 모델학교(경남교육청, 2016)
- 3)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의 준비단계로서 단위학교 실정과 여건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적·부분적 행복학교로 학교형, 학년(군)형, 동아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경남교육청, 2016)
- 4) 두드림학교: 학습부진, 학습장애, 정서행동 장애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진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 5) 교육복지우선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학교 연계학교는 가정위기,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무단결석, 학습 결손 등에 따른 학업 중단 발생방지를 위해 고등학교 대 상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교육부에서 2015년도부터 학업 중단 다 수 발생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한 학교(경남교육청, 2016)

다. 경남형 학력관 네이밍(이름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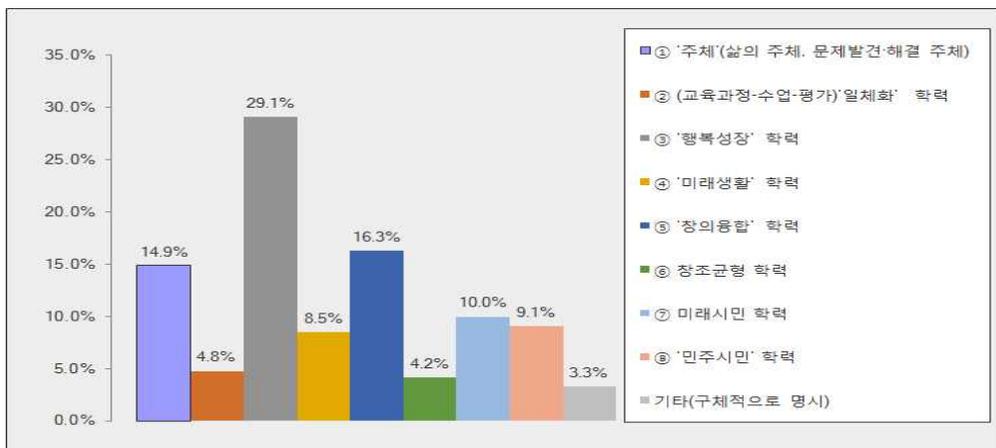
1) 전체 대상

미래의 학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립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참학력’, 충북교육청은 ‘미래학력’, 경기교육청은 ‘창의지성역량’, 강원교육청은 ‘살아가는 힘’을 설정했다. 경남교육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남형 학력관’을 새롭게 규정하는 네이밍(이름짓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성장 학력’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의융합 학력, 주체학력, 미래시민학력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경남형 학력관 네이밍

응답 구분	응답률	빈도(N)
① ‘주체’(삶의 주체, 문제발견·해결의 주체)	14.9%	100
② (교육과정·수업·평가)‘일체화’ 학력	4.8%	32
③ ‘행복성장’ 학력	29.1%	196
④ ‘미래생활’ 학력	8.5%	57
⑤ ‘창의융합’ 학력	16.3%	110
⑥ 창조균형 학력	4.2%	28
⑦ 미래시민 학력	10.0%	67
⑧ ‘민주시민’ 학력	9.1%	6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3%	22
합 계		673



[그림 4] 경남형 학력관 네이밍

2) 성별에 따른 경남형 학력관 응답 비교 분석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은 공통적으로 '행복성장학력관'이 각각 31.4%,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은 '창의융합학력관'(18.2%), '주체학력관'(11.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주체학력관'(19.0%), '창의융합학력관'(15.8%)순으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27> 성별과 경남형 학력관 응답 비교 분석 (단위: %)

구분	경남형 학력관									x ²
	주체학력	일체화학력	행복성장학력	미래생활학력	창의융합학력	창조형학력	미래시민학력	민주시민학력	합계	
남	11.2	5.0	31.4	10.9	18.2	4.6	7.9	10.9	100.0	14.727* (df=2)
여	19.0	4.9	29.0	6.9	15.8	4.0	12.4	8.0	100.0	
전체	15.4	4.9	30.1	8.8	16.9	4.3	10.3	9.4	100.0	

*: p<.05

<표 28> 경남형 학력관 네이밍(이름짓기) 기타의견

순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	"배움 중심 행복" 학력
2	공감(공부와 감성)학력
3	미래생활역량
4	높은 학력
5	비전
6	다함께 행복 학력
7	미래의 힘' 학력, '미래맞이' 학력, '미래 똑똑' 학력, '미래 두드림' 학력
8	미래인재학력
9	역량중심 학력
10	행복역량
11	소통과 공감 학력
12	바른 학력(교육이 올바른 삶을 가꿀 수 있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교육)
13	행복추구역량
14	배움 학력
15	학생역량
16	참살학력

라. 영역별 핵심역량 설정

제6차 경남교육발전계획에 따르면, 경남의 교육지표인 미래사회 민주시민상으로 I.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 II.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 III.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으로 설정하여 행복학교, 환경생태교육, 안전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2015 개정교육과정, 연구회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2가지의 영역별 핵심역량을 설정했다. 이 12가지 영역별 핵심역량을 참조하도록 하여 I.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 II.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 III.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영역의 4개 역량 중 2개 역량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29> 경남교육 미래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과 세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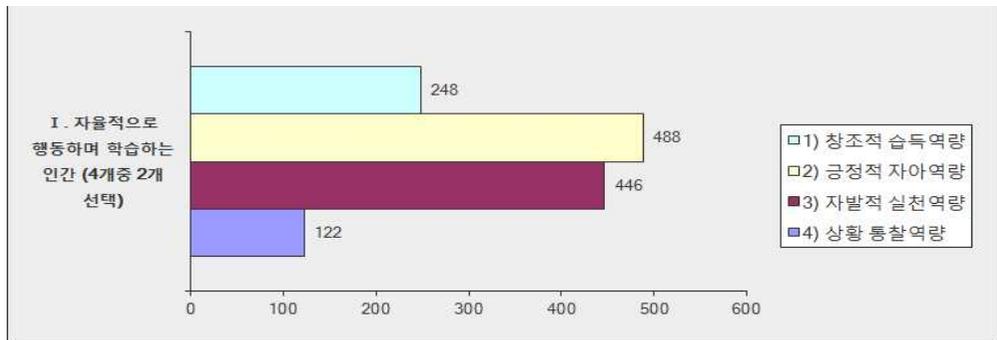
순	미래인재 핵심역량	역량 세부 설명
1	창조적 습득	·배움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에 대해 책임감 있게 계획하는 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배울 수 있는 힘
2	긍정적 자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발견하고 자기의 목적인 바를 위해 행동하는 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내면의 힘
3	자발적 실천	·배움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힘
4	상황 통찰	·직면한 상황 속에서 파생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힘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적, 논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 힘
5	관계 소통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협력적 발전을 이루는 힘(경기도 교육청, 2012)
6	안전 생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인지, 예방할 수 있는 힘 ·나의 안전과 더불어 타인의 안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힘
7	자율적 책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경기도 교육청, 2012)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힘
8	다양성 수용	·다양한 삶의 가치와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경기도 교육청, 2012) ·나의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를 허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힘
9	미래 설계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힘 ·새롭고 다양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
10	심미적 감성	·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향유하는 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힘
11	지식정보처리	·다양한 정보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할 수 있는 힘 ·유익미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힘
12	지구사랑 감수성	·환경문제 등 범지구적인 인류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자 실천하는 힘 ·미래 지구의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힘

1) I.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설정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설정을 위해 사전 안내를 통해 4개중 2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분석 결과, 핵심역량 2개는 긍정적 자아역량(72.5%)과 자발적 실천역량(66.3%)으로 설정되었다.

<표 30>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단위: 명, %)

응답 구분	응답률(%)	빈도(N)
1) 창조적 습득역량	36.9	248
2) 긍정적 자아역량	72.5	488
3) 자발적 실천역량	66.3	446
4) 상황 통찰역량	18.1	122
합 계		1,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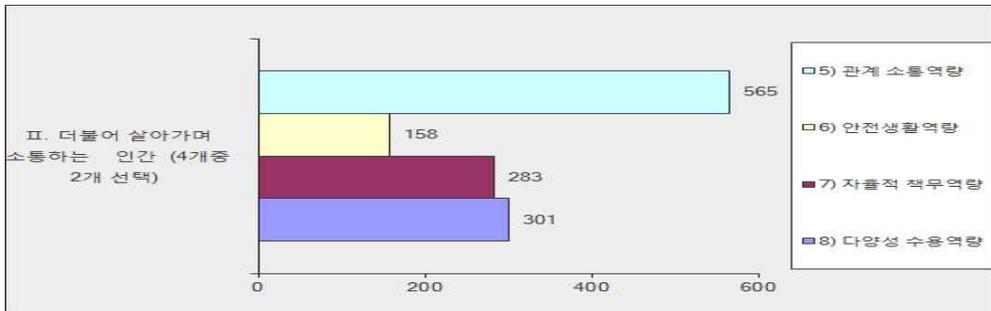
[그림 5]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2) II.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의 핵심 역량 설정 (2개 체크)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설정을 위해 사전 안내를 통해 4개중 2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분석 결과, 핵심역량 2개는 관계소통역량(84.0%)과 다양성 수용 역량(44.7%)으로 설정되었다.

<표 31>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단위: 명, %)

응답 구분	응답률(%)	빈도(N)
5) 관계 소통역량	84.0	565
6) 안전생활역량	23.5	158
7) 자율적 책무역량	42.1	283
8) 다양성 수용역량	44.7	301
합 계		1,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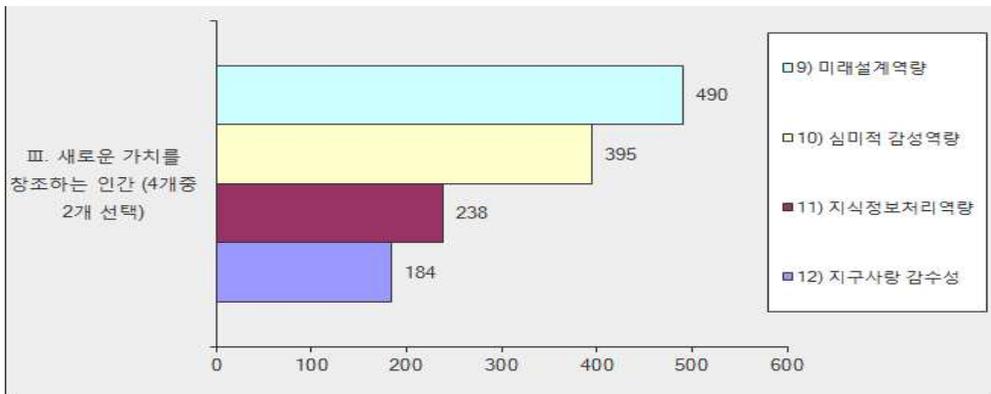
[그림 6]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3) III.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핵심 역량 설정 (2개 체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설정을 위해 사전 안내를 통해 4개중 2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분석결과, 핵심역량 2개는 미래설계역량(72.8%)과 심미적 감성역량(58.7%)으로 설정되었다.

<표 32>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단위: 명, %)

응답 구분	응답률(%)	빈도(N)
9) 미래설계역량	72.8	490
10) 심미적 감성역량	58.7	395
11) 지식정보처리역량	35.4	238
12) 지구사랑 감수성	27.3	184
합 계		1,307



[그림 7]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의 핵심역량

<표 33> 학력관에 대한 기타의견

<p>학생들의 실 권리 중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을 통한 지식향상보다 학습량을 줄여 학습의 부담감을 줄여야 함. 예) 10분 내 과제제시 • 평가를 줄이고 선택형 평가를 없애야 함.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권리와 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함. •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여유가 필요. 수업시수도 줄이고 평가의 척도화도 지양해야 함. 그 여유가 상대를 배려하는 인성을 만듦.
<p>기초기본 학습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점수가 높은 것이 학력이 높다는 예전의 학력관을 벗어나야 하지만 학생들의 기초기본학습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됨. •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해야함. • 거창한 미래계획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교과 기초기본교육임. 위의 교육 바탕위에 경남 학력관을 정립해야 함. • 기본 지식이 없는 새로운 창조는 허구이기 때문에 지식도 중요함.
<p>입시위주 학력관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위주의 학력관을 배제해야 함. • 평가는 장기적인 활동으로 현 교육과정에서의 평가의 역할이 다소 약한 부분이 있음. 초등학교에서 평가는 담임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중고등에서는 입시에 따른 경직성을 가지고 있음. 과연 평가관의 정립이 평가의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음. 진심으로 변화를 바란다면 교사들에게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문화형성이 필요함. • 서술형 평가만으로 과연 이런 역량이 길러지는지 의문임.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서술형 평가의 비중을 높였다면 교사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지원이 필요함. •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초, 중, 고 교육은 바뀌지 않을 것. •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함.
<p>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역량 • 학생이 자발적으로 얻으려는 학력이 중요. • 더욱 구체적인 감성적 역량과 환경관련 역량의 강화 • 좁은 의미의 학력의 정의에서 벗어나 폭넓은 의미에서의 학력관 정립이 요망됨.
<p>인성교육 중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인성 • 학력은 충분하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바른 인성을 갖춘 실행 역량 중심 학력 강조 • 배려하는 인성이 바탕되어 학력의 최종 목표가 인류애에 있도록 교육
<p>경남형 학력관의 특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형 혁신학교가 행복학교이므로 행복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음. • 경남 교육만의 미래 역량을 설정함에 있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요소를 적절히 배분하여 좀 더 특색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음. • 행복이란 단어는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에 학력관은 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 '경남형 평가관'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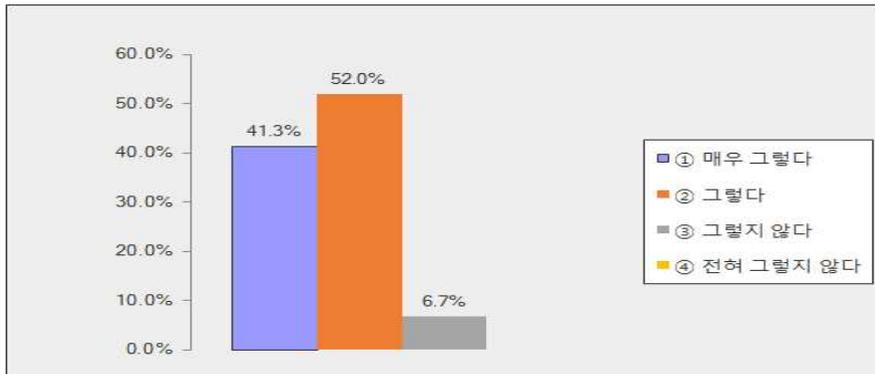
가. '성장참조 평가'로의 변화 동의 정도

1) 전체 동의

평가관은 '기준지향 평가'일변도에서 '준거지향, 성장참조 평가'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성장참조 평가로의 변화에 따른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긍정응답률이 93.3%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4> '성장참조 평가'로의 변화 동의 정도

응답구분	응답률	빈도(N)
① 매우 그렇다	41.3%	278
② 그렇다	52.0%	350
③ 그렇지 않다	6.7%	45
④ 전혀 그렇지 않다	0.0%	0



[그림 8] '성장참조 평가'로의 변화 동의 정도

2) 학교급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학교급별 성장참조 평가관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동의도(M=3.45)가 중학교의 동의도(M=3.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의 동의도(M=3.45)가 고등학교의 동의도(M=3.2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 아직까지 기준지향평가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5〉 학교급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평가관 동의 정도	1. 초등학교	341	3.45	.585	10.847** *	1-2*** 1-3*
	2. 중학교	192	3.21	.598		
	3. 고등학교	140	3.28	.601		
	합계	673	3.35	.601		

***: $p < .001$, *: $p < .05$

3) 교원 직위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교원직위별 성장참조 평가관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교감과 일반교사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감의 동의도($M=3.50$)가 일반교사의 동의도($M=3.2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교사는 성장참조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의 평가로 인해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6〉 교원직위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평가관 동의 정도	1. 교장	49	3.47	.616	3.690**	2-5*
	2. 교감	80	3.50	.528		
	3. 수석교사	7	3.57	.535		
	4. 부장교사	192	3.38	.575		
	5. 일반교사	345	3.27	.619		
	합계	673	3.35	.601		

**: $p < .01$, *: $p < .05$

4) 교과목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교과목별 성장참조 평가관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기가(기술·가정)와 초등과목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기가의 동의도($M=3.07$)가 초등과목의 동의도($M=3.48$)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기가(기술·가정) 과목은 과목 특성상 실습의 결과물로 학생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과목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장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37> 교과목별 성장참조 평가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평가관 동의 정도	1. 국어	68	3.31	.605	2.475**	6-12*
	2. 영어	49	3.33	.555		
	3. 수학	41	3.24	.582		
	4. 사회	45	3.18	.650		
	5. 과학	55	3.40	.627		
	6. 기가	29	3.07	.530		
	7. 체육	18	3.44	.616		
	8. 음악	12	3.25	.622		
	9. 미술	12	3.25	.452		
	10. 진로	10	3.50	.707		
	11. 도덕	12	3.08	.515		
	12. 초등	252	3.48	.602		
합계	603	3.36	.607			

** : p<.01, *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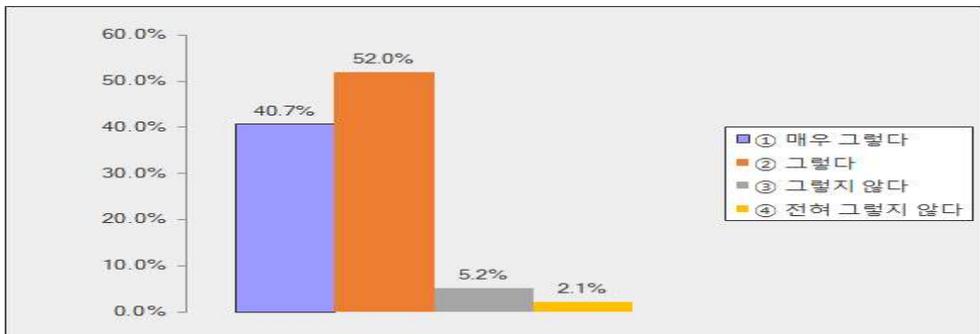
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의 동의 정도

1) 전체 동의 정도

교사의 평가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를 전제로 제시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긍정응답률이 92.7%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8>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의 동의 정도

구분	응답률	빈도(N)
① 매우 그렇다	40.7%	274
② 그렇다	52.0%	350
③ 그렇지 않다	5.2%	35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1%	14



[그림 9]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의 동의 정도

2) 학교급별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동의도(M=3.43)가 중학교의 동의도(M=3.1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의 동의도(M=3.43)가 고등학교의 동의도(M=3.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가 되면 평가자로서의 교사의 평가관이 더욱 중요시 된다. 중·고등학교는 입시에서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평가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어 동의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9> 학교급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1. 초등학교	341	3.43	.659	11.123** *	1-2*** 1-3**
	2. 중학교	192	3.18	.658		
	3. 고등학교	140	3.21	.651		
	합계	673	3.31	.667		

***: p<.001, **: p<.01

3) 교원 직위별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교원직위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교장과 일반교사, 교감과 일반교사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장의 동의도(M=3.57)가 일반교사의 동의도(M=3.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감의 동의도(M=3.51)가 일반교사의 동의도(M=3.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교사는 학교 관리자와 달리 실제 수업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일체화 시키는 것에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40> 교원직위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일체화 동의 정도	1. 교장	49	3.57	.500	5.727***	1-5** 2-5**
	2. 교감	80	3.51	.551		
	3. 수석교사	7	3.57	.535		
	4. 부장교사	192	3.32	.663		
	5. 일반교사	345	3.22	.697		
	합계	673	3.31	.667		

***: p<.001, **: p<.01

4) 교과목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교과목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사회(역사포함)와 초등과목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사회과목의 동의도(M=3.09)가 초등과목의 동의도(M=3.48)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사회 과목은 타 교과나 초등에 비해 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완전히 일체화 시키는데 동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41> 교과목별 일체화 관점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일체화 동의 정도	1. 국어	68	3.37	.544	2.723**	4-12*
	2. 영어	49	3.20	.539		
	3. 수학	41	3.12	.812		
	4. 사회	45	3.09	.633		
	5. 과학	55	3.20	.803		
	6. 기가	29	3.31	.471		
	7. 체육	18	3.33	.840		
	8. 음악	12	3.33	.651		
	9. 미술	12	3.08	.289		
	10. 진로	10	3.10	.876		
	11. 도덕	12	3.17	.718		
	12. 초등	252	3.48	.665		
합계	603	3.33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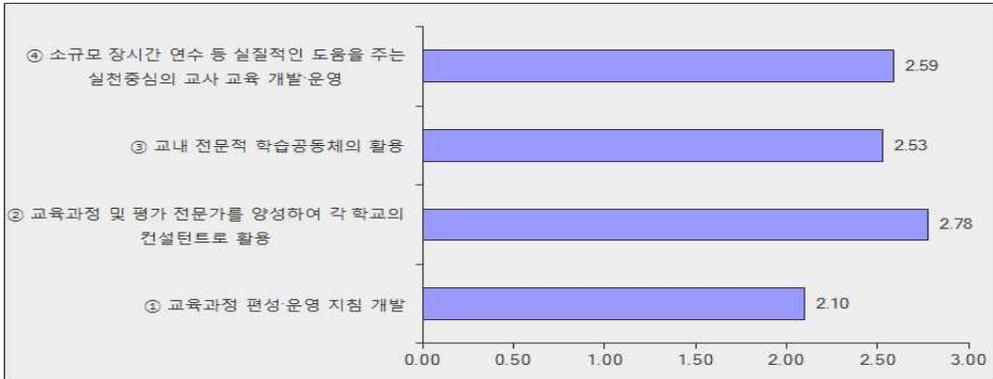
** : p<.01, * : p<.05

다.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교사 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순위평균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이 2.10으로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응답 구분	1	2	3	4	순위 평균	빈도(N)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306	126	109	132	2.10	673
②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 학교의 컨설턴트로 활용	72	195	212	194	2.78	673
③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용	120	198	234	121	2.53	673
④ 소규모 장시간 연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천중심의 교사 교육 개발·운영	175	154	118	226	2.59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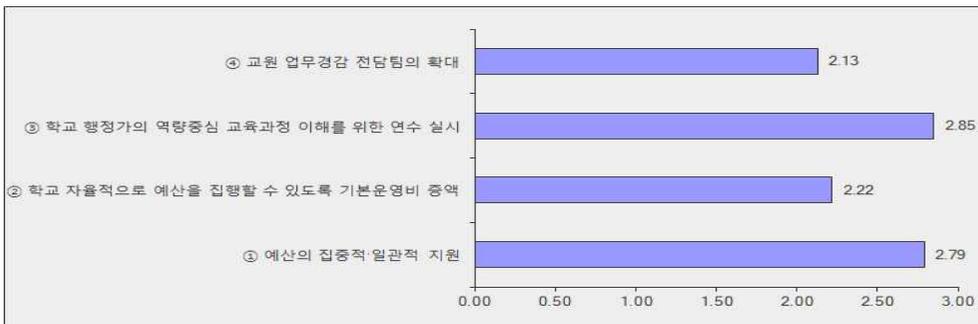
[그림 10]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교사 지원방안

라.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순위평균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 업무 경감 전담팀의 확대가 2.13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응답구분	1	2	3	4	순위 평균	빈도(N)
① 예산의 집중적·일관적 지원	105	156	185	227	2.79	673
② 학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 증액	189	226	177	81	2.22	673
③ 학교 행정가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 실시	71	170	221	211	2.85	673
④ 교원 업무경감 전담팀의 확대	308	121	90	154	2.13	673



[그림 11]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평가혁신 지원방안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평가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순위평균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융통성·유연성 있는 진술로 감사로 인한 부담감소'의 항목이 2.11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남형 평가관'의 확립으로 명확한 평가의 방향 제시가 2.13으로 나타났다.

<표 44>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평가혁신 지원방안

응답 구분	1	2	3	4	우선 순위 평균	빈도 (N)
① '경남형 평가관'의 확립으로 명확한 평가의 방향 제시	285	134	133	121	2.13	673
②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융통성·유연성 있는 진술로 감사로 인한 부담 감소	203	260	143	67	2.11	673
③ 관리자 및 교원의 평가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65	141	243	224	2.93	673
④ 교사 평가권의 확대를 위한 문서화	120	138	154	261	2.83	673



[그림 12]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평가혁신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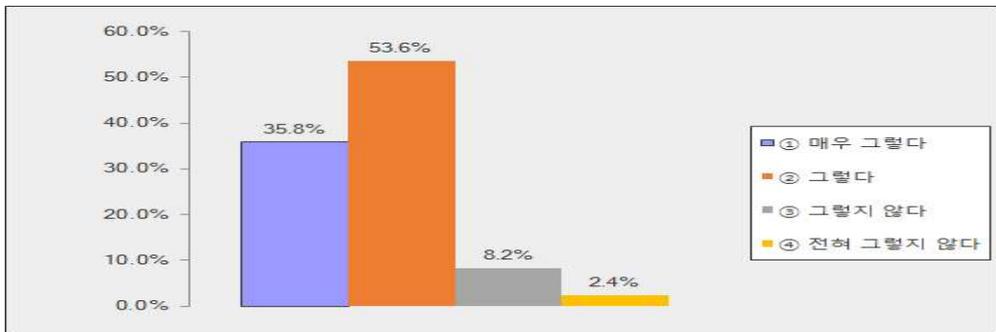
바.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

1) 전체 동의 정도

새로이 설정되는 경남형 학력관에 따라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과정중심 수시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정중심 수시평가'활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긍정응답률이 89.4%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5> '과정중심 수시평가'활용 동의 정도

응답구분	응답률	빈도(N)
① 매우 그렇다	35.8%	241
② 그렇다	53.6%	361
③ 그렇지 않다	8.2%	55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4%	16
합 계		673



[그림 13] '과정중심 수시평가'활용 동의 정도

2) 학교급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

학교급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동의도(M=3.36)가 중학교의 동의도(M=3.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의 동의도(M=3.36)가 고등학교의 동의도(M=3.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시행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늘리는 등의 변화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는 이미 과정중심 수시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6> 학교급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과정중심 수시평가 동의 정도	1. 초등학교	341	3.36	.678	12.871** *	1-2*** 1-3**
	2. 중학교	192	3.06	.706		
	3. 고등학교	140	3.14	.663		
	합계	673	3.23	.695		

***: p<.001, **: p<.01

3) 교원직위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

교원직위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교감과 일반교사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감의 동의도(M=3.49)가 일반교사의 동의도(M=3.1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7> 교원직위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과정중심 수시평가 동의 정도	1. 교장	49	3.33	.774	5.445***	2-5***
	2. 교감	80	3.49	.528		
	3. 수석교사	7	3.14	.378		
	4. 부장교사	192	3.29	.699		
	5. 일반교사	345	3.12	.702		
	합계	673	3.23	.695		

***: p<.001

4) 교과목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

교과목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 Tukey방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사회(역사포함)와 초등과목에서 유의미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사회과목의 동의도(M=3.02)가 초등과목의 동의도(M=3.38)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8> 교과목별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용 동의 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과정중심 수시평가 동의 정도	1. 국어	68	3.19	.629	2.493**	4-12*
	2. 영어	49	3.06	.747		
	3. 수학	41	3.17	.629		
	4. 사회	45	3.02	.690		
	5. 과학	55	3.22	.738		
	6. 기가	29	3.10	.772		
	7. 체육	18	3.22	.548		
	8. 음악	12	3.08	.669		
	9. 미술	12	3.08	.515		
	10. 진로	10	3.40	.699		
	11. 도덕	12	2.83	.937		
	12. 초등	252	3.38	.667		
	합계	603	3.24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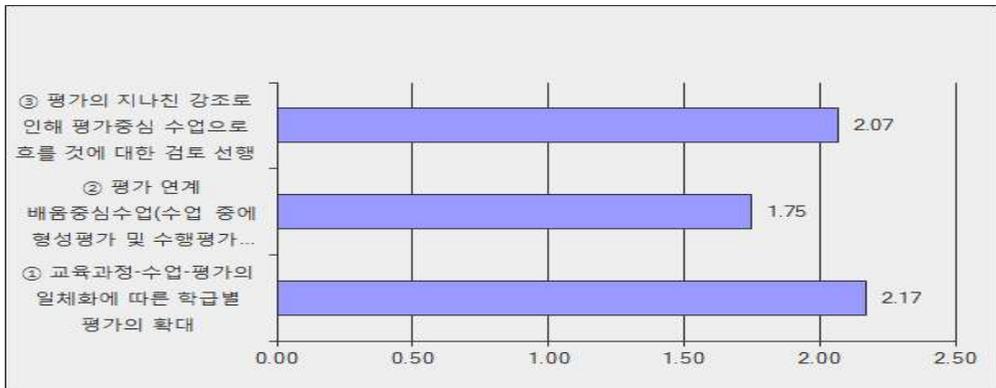
** : p<.01, * : p<.05

사. ‘과정중심 수시평가’에서 필요한 추가 검토 사항

경남의 학생평가 추진방향은 ‘과정중심 수시평가’이다. ‘과정중심 수시평가’ 추가 검토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는 순위평균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연계 배움중심수업(수업 중에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을 수업과 접목)의 확대의 항목이 1.75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9> ‘과정중심 수시평가’에서 필요한 추가 검토 사항

응답구분	1	2	3	순위 평균	빈도(N)
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에 따른 학급별 평가의 확대	155	246	272	2.17	673
② 평가 연계 배움중심수업(수업 중에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을 수업과 접목)의 확대	275	288	110	1.75	673
③ 평가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평가중심 수업으로 흐를 것에 대한 검토 선행	243	139	291	2.07	673



[그림 14] ‘과정중심 수시평가’에서 필요한 추가 검토 사항

아. 평가관에 대한 기타의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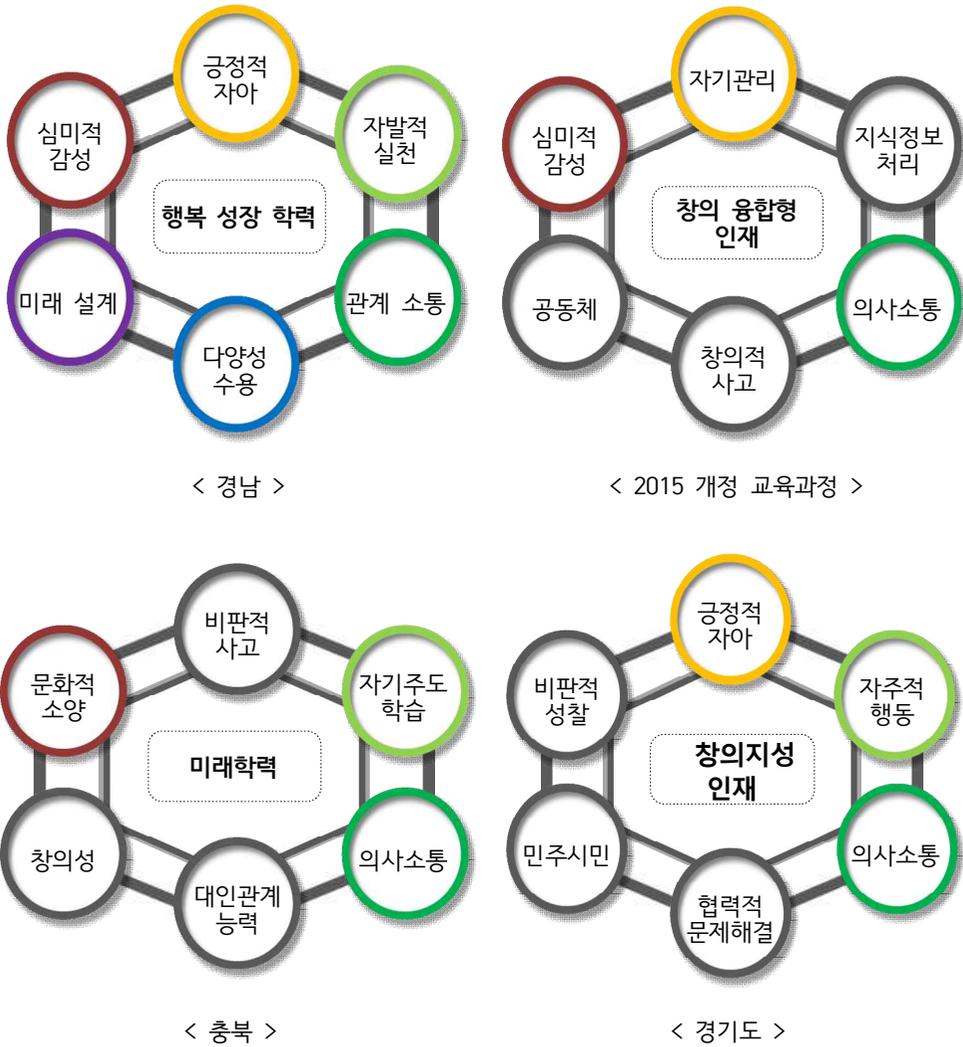
<표 50> 평가관에 대한 기타의견

<p>현 시행 제도의 변화와 교사의 업무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로 수시평가 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은 그 과정을 소화하기 힘들고 교사들은 세분화된 평가를 실시하여 쫓김. 교과별 평가의 최소화 필요. • 교사의 평가권 확대와 수시평가의 감사가 축소되어야 활성화 될 것임. •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의 평가관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업무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 평가의 결과를 상, 중, 하 대신 서술로 해야 함. • 상급학교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학교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됨. •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뭐든 통제하고 지시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음. • 교실 내 학생 정원수가 25명 이내가 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 지식의 암기여부를 평가하는 지필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교사가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함. •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천하고 실행중심평가가 되어야 함. • 평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보여주기식 명칭보다 현장에서 호응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함. • 학교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 경남형 평가관의 정착과 확산이 달라질 수 있음. 각 학교마다 관리자의 성적위주의 학력을 아직도 중시하는 곳이 많아 업무담당자는 이중 업무를 하게 됨. •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잦은 통지를 위한 평가 관련 업무 증가나 평가를 위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실제 학생의 학력 향상에 과정중심 수시평가가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필요함. • 평가 중심으로 평가에 과중한 시간이 소모되며 서류상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 아직도 일선에서 배움 중심수업과 평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6학급 규모의 작은 학교를 제외 하고는 학급별 평가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학교가 드뭄. 따라서 인식개선과 함께 학급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급단위의 과정 중심 평가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으면 학부형이나 주변을 설득하기 힘들. 대학의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 • 평가결과의 수업개선 활용(피드백) 방안 모형 구안
<p>교사의 전문성, 평가의 신뢰도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형 평가로 인한 학생 부담 증가 및 교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차가 생겨 형평성을 잘 발휘하지 못함. • 수행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학년에 학급이 여러 반일 경우 학급별 평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음. 다만 학년별 수행평가의 확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영역을 확대 했으면 함. •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평가권이 강화되어야 함. • 과정중심 수시평가 역시 평가의 한 방법일 뿐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조 또는 강요하지 말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맞게 평가 역시 교사들의 역량에 맡겼으면 좋겠음. •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 가르친 사람이 평가해야 함.
<p>과정 중심 수시평가와 서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평가체제(현재 과목별 성적을 학년별로 처리)에서 어떻게 과정중심 수시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 • 서술형 평가는 자칫 잘못하면 발전의 여지가 있지만 현 성적이 낮은

<p>평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유리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필평가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 • 평가에 너무 치중되어 있음. • 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학습부진아를 더 양산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어떤 형태로든 평가에 지나친 시간할애는 좋지 않음.
<p>학생을 위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게 직접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함. • 교사가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세태를 바꿔야 함.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함. •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양해야 함. •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로서의 기능이 필요. • 평가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내용을 참고삼아 학생들의 핵심성취목표 달성에 지도교사들의 열정이 필요. • 평가를 없애는 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키울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라 생각함. • 평가가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함. • 평가는 수시평가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학습과정의 변화를 추구해야 함. • 배움의 한 방식으로서 평가를 활용.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평가결과의 피드백으로 학생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평가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특수한 경우 제외)
<p>평가관 홍보 및 학부모 인식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평가관에 대해 학부모 연수 등 학부모 홍보 확대 • 성적에 예민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우려가 큼. • 학부모의 평가관 반영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그림 15] 경남형 학력관과 평가관의 정립



[그림 16] 경남 · 2015 개정 교육과정 · 충북 · 경기도의 역량 비교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알파고로 대변되는 미래형 교육환경에 걸맞게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학력관을 정립하여 새로이 설정하고 설정된 경남형 학력관에 부합하는 평가관을 선택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진행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경남형 학력관의 연구결과, 행복성장학력관을 도출하였고, 이는 6개 역량을 하위요소로 구성되었으며,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철학적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경남형 학력관인 행복성장 학력에 맞는 평가관은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고도화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고도화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혁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1. 경남형 학력관 : ‘행복성장 학력’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복학교 및 평가연계 배움 중심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함에 있어 전통적 학력관과 새로운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학력관이 상충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경남교육의 요구와 정책 시행에 앞서 학력에 대한 본질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경남형 학력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외 학력관 및 평가에 대한 최근의 연구, 국가수준 교육과정, 경남교육정책 등의 이론적 검토를 거쳐 학력관이 기존의 ‘지식중심 학력관’에서 ‘역량중심 학력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남교육의 미래 인재상에 따른 영역별 핵심역량모형을 설정하고 학력관 정립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여 ‘경남형 학력관’은 ‘역량중심 학력관’으로 철학적 토대를 설정하게 되었고, 학력관의 이름은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행복성장 학력’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행복학교 운영의 철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행복성장 학력’의 핵심역량으로 긍정적 자아역량, 자발적 실천역량, 관계소통역량, 다양성 수용 역량, 미래설계역량, 심미적 감성역량이 설정되었다.

이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역량, 경기도교육청의 ‘창의지성역량’, 충북교육청의 ‘미래 학력’ 역량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은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남의 심미적 감성역량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심미적 감성, 충북의 문화적 소양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심미적인 감성을 제고하는 능력은 결국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소양을 신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둘째, 경남의 긍정적 자아역량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자기관리역량과 경기의 긍정적 자아역량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자아역량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발견하고 자기의 목적인 바를 위해 행동하는 능력과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셋째, 경남의 자발적 실천역량은 충북의 자기주도학습역량과 경기의 자주적 행동역량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배움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능력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능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넷째, 경남의 관계소통역량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의사소통역량, 충북의 의사소통역량, 경기의 의사소통역량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협력적 발전을 이루는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경남의 '행복성장학력관'에 따른 6가지 역량 가운데 본 연구에서 차별화 되는 점은 다음의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미래설계역량'이다. 미래설계역량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힘과 새롭고 다양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미래 인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성 수용역량'이다. 다양성 수용역량은 다양한 삶의 가치와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과 나의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를 허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되어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경남의 다문화 학생(중도입국 학생 포함)비율이 전국 3위권에 형성되어 지역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2. 경남형 평가관 :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타당성 확보

경남형 평가관의 설정을 위해서 평가의 패러다임이 '규준지향 평가'에서 '준거지향, 성장참조 평가'로 변화하는 것과 경남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과정중심 수시평가'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높은 비율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현재 경남의 평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경남의 초등 학생평가는 '일제식 선택형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과정중심 수시평가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안착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할 것을 강조하며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연계 배움중심 수업을 실현하고 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시행 및 자기주도 학습전형 강조, 고등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확대로 기존의 평가 방식은 급격하게 그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가 교육목표와 평가가 일치하는 제대로 된 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방법, 시기, 대상 등의 면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

경남형 평가관은 '행복성장 학력'의 철학적 바탕 위에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의 관점에서 평가연계 배움중심 수업 실천을 통해 의미 있게 실현할 수 것이다. 이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행·재정적으로 교원 업무 경감 전담팀의 확대를 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제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행복성장학력관과 그에 따른 6개 역량에 맞는 교육과정, 역량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역량지표의 수준화 작업도 요구된다. 예컨대, 수준화 단계는 기초, 응용, 심화의 3단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순차적용에 맞게 교육과정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복성장학력관을 뒷받침하는 평가기제로서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의 우수 사례를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의 우수 사례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론적 배경에 대한 토대는 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연구가 이론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에 대한 우수 사례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는 과정중심 수시평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결과를 보면, 역량중심학력관 등의 정도, 과정중심수시평가 등의 정도 등에서 기술과 가정, 사회 과목에서 초등과의 평균 차이를 보였다. 초등이 기술과 가정, 사회 과목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대해 양적연구로는 밝힐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질적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행복성장 학력관-6개 역량-과정중심 수시평가-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의 체제적 시스템에 대해 추후 교육환경에 발맞춰 본 연구 모형의 정교화, 고도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남교육청(2015). 2015년 경남학업성적관리지침.
- 경남교육청(2015). 제6차 경남교육발전계획.
- 경기도교육청(2016).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 보도자료(2015.9.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 교육부보도자료(2016.3.20.).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산출 허용 등의 확대방안.
- 전북교육청(2015). 전라북도 학력관<참학력> 개정 설명.
- 충북교육청(2015). 충북형 미래 학력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트렌드로 보는 미래사회의 5대 특징과 준비 과제 제8호
- 김정환, 권향순(2010). 구성주의적 평가관에 따른 역동적 평가의 원리와 적용방안. 교육평가연구, 23(3), 547-567.
- 박창언, 김희용, 차철표(2012).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학력관과 학교교육의 방향 탐색. 수산해양교육연구, 24(1), 79-94.
- 성기선(2005). 학력저하관련 논의와 새로운 학력관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인간연구 제9호, 32-55.
- 이윤미, 손지희(2010). 스웨덴교육에서의 학력관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사회적 합의와 시사점. 교육문제연구, 38, 25-57.
- 이정표(2001). 국민의 학력관에 나타나는 학력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1(1), 55-75.
- 천호성(2016). 한국과 일본의 학력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2), 115-135.
- 허영주(2015). 평생교육 평가방식의 문제와 홀리스틱 평가관의 도입. 홀리스틱교육연구, 19(4), 193-212.
- 홍세화, 황선준, 최영우외(2014). 교사, 입시를 넘다. 서울: 우리교육. (2009. 10. 20).
- 강창동(2010). 학력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1), 1-24.
- 박철홍(2002). 암기위주 교육의 극복을 위한 대안 탐색: 의미로서의 지식관과 교육적 의의. 교육철학, 22, 81-97.
- 이근호, 박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승은(2015). 미래 학력 논의가 교육과정 연구에 주는 시사. 미래형 학력 전문가 세미나(2015.11) 발표 원고자료 집.
- 이용남(2008). 최근 지식관의 변화와 교육활동의 재구성. 교육원리연구, 2008, 13(1), 1-21.
- 황정규(2001, 9). 21세기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길러야 할 학력의 성격.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경남교육청(2015). 2015년 경남학업성적관리지침.
- 이종승(1991). Tyler 교육과정과 수업의 원리. 교육과학사
- 이경섭(1991). 학교교육과정론. 교육과학사
- Decker F. Walker, Joans F. Soltis(1992). 교육과정과 목적. 교육과학사
- 유봉호, 정영주(1993).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학연구사
- 김동환, 권낙원(1998). 교육과정과 평가. 상조사
- 이성호(1999). 교육과정과 평가. 양서원
- 홍후조(2002).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문음사
- 경남교육청(2016). 2017. 행복학공공모설명회 자료집.
- 김재춘, 부재울, 소경희, 채경희(2005). 예비·현직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https://ko.wikipedia.org/wiki/알파고>. 위키백과

[부록]

【 경남형 학력관 및 평가관 개념 정립 연구 】 관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 현장연구회‘청출어람’은 경남 미래교육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철학적 관점 확립을 위해 ‘경남형 학력관’과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경남형 평가관’에 대해 그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통계법 33조, 비밀보호 조항)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기간: 2016. 7. 15. ~ 7. 25
※ 회신방법: 온라인 설문(<https://ko.surveymonkey.com/r/C2BDLR6>) 후 ‘완료’ 버튼 클릭

2016년 7월 15일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회‘청출어람’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청출어람’ 회장(010-7207-0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경남형 학력관’의 설정에 관한 내용

1. 미래의 지식기반정보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학력관은 ‘역량중심 학력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동의하십니까?

구분	일반적인 학력관	역량중심 학력관
학력이란	· 학벌 · 단순 암기로 획득한 지식 · 학업성취력 · 서열화와 선발이 목적	·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힘 ·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 ·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역량중심의 학력관’을 반영하여 최근 각 지역별로 경기교육청은 ‘창의지성역량’, 전북교육청은 ‘참학력’, 충북교육청은 ‘미래학력’등을 설정하여 각 지역의 특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안전교육, 환경생태교육 등을 중시하는 경남교육청에서도 ‘경남형 학력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미래의 학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립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참학력’, 충북교육청은 ‘미래학력’, 경기교육청은 ‘창의지성역량’, 강원교육청은 ‘살아가는 힘’을 설정했습니다. 경남교육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남형 학력관’을 명명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체’(삶의 주체, 문제발견-해결의 주체. 예: 세월호) 학력
 ② (교육과정-수업-평가)‘일체화’ 학력 ③ ‘행복성장’ 학력
 ④ ‘미래생활’ 학력 ⑤ ‘창의융합’ 학력 ⑥ 창조균형 학력
 ⑦ 미래시민 학력 ⑧ ‘민주시민’ 학력 ⑨ 기타: ()

4. 제6차 경남교육발전계획에 따르면, 경남의 교육지표인 미래사회 민주시민상으로 I.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 II.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 III.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으로 설정하여 행복학교, 환경생태교육, 안전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선행연구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참고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2가지의 영역별 핵심역량을 설정했습니다. 경남 학력관 정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영역별로 골라 2가지씩 √해 주십시오.

개인적 역량	영역별 핵심역량	2가지 항목 선택
I.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	1) 창조적 습득역량	
	2) 긍정적 자아역량	
	3) 자발적 실천역량	
	4) 상황 통찰역량	
사회적 역량	영역별 핵심역량	2가지 항목 선택
II.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	5) 관계 소통역량	
	6) 안전생활역량	
	7) 자율적 책무역량	
	8) 다양성 수용역량	
창조적 역량	영역별 핵심역량	2가지 항목 선택
III.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9) 미래설계역량	
	10) 심미적 감성역량	
	11) 지식정보처리역량	
	12) 지구사랑 감수성	

※ 참조 : 경남교육 미래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과 세부 설명

순	미래인재 핵심역량	역량 세부 설명
1	창조적 습득역량	배움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에 대해 책임감 있게 계획하는 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배울 수 있는 힘
2	긍정적 자아역량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발견하고 자기의 목적인 바를 위해 행동하는 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내면의 힘
3	자발적 실천역량	배움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힘
4	상황 통찰역량	직면한 상황 속에서 파생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힘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적, 논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 힘
5	관계 소통역량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협력적 발전을 이루는 힘
6	안전 생활역량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인지, 예방할 수 있는 힘 나의 안전과 더불어 타인의 안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힘
7	자율적 책무역량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힘
8	다양성 수용역량	다양한 삶의 가치와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 나의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를 허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힘
9	미래 설계역량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힘 새롭고 다양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
10	심미적 감성역량	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향유하는 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힘
11	지식정보처리역량	다양한 정보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할 수 있는 힘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힘
12	지구사랑 감수성	환경문제 등 범지구적인 인류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자 실천하는 힘 미래 지구의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힘

5. 학력관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B. '경남형 평가관'의 설정에 관한 내용

1. 평가관은 '규준지향 평가'일변도에서 '준거지향, 성장참조 평가'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평가관이 이러한 평가의 흐름을 따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규준지향 평가 : 상대평가 ▶준거지향 평가 : 절대평가 ▶성장참조 평가 : 학습자 능력변화 평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교사의 평가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를 전제로 제시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관점에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모두 표기)

-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
- ②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 학교의 컨설턴트로 활용 ()
- ③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용 ()
- ④ 소규모 장시간 연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천중심의 교사 교육 개발·운영()
- ⑤ 기타 의견 : ()

4.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모두 표기)

- ① 예산의 집중적·일관적 지원 ()
- ② 학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 증액()
- ③ 학교 행정가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 실시 ()
- ④ 교원 업무경감 전담팀의 확대 ()
- ⑤ 기타 의견 : ()

5.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 혁신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모두 표기)

- ① '경남형 평가관'의 확립으로 명확한 평가의 방향 제시()
- ②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융통성·유연성 있는 진술로 감사로 인한 부담 감소()
- ③ 관리자 및 교원의 평가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④ 교사 평가권의 확대를 위한 문서화()
- ⑤ 기타 의견 : ()

6. 경남형 학력관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과정중심 수시평가'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기타 의견 : ()

7. 경남의 학생평가 추진방향은 '과정중심 수시평가'입니다.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모두 표기)

- 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에 따른 학급별 평가의 확대 ()
- ② 평가 연계 배움중심수업(수업 중에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을 수업과 접목)의 확대()
- ③ 평가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평가중심 수업으로 흐를 것에 대한 검토 선행()
- ④ 기타 의견 : ()

8. 평가관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

< 기초 사항 > (해당되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학교급별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2. 성 별 : ① 남 ② 여
3. 연 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교육경력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5. 직 위 : ① 교장 ② 교감 ③ 수석교사 ④ 부장교사 ⑤ 일반교사
6. 교 과 :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역사 포함) ⑤ 과학 ⑥ 기술·가정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진로 ⑪ 도덕(윤리포함) ⑫ 초등 ⑬ 한문
 ⑭ 제2외국어 ⑮ 기타
7. 근무지역 : ① 도시(동) ② 농어촌(읍면)
8. 재직학교 (중복체크가능)
: ① 행복학교 ② 행복맞이학교 ③ 두드림학교 ④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⑤ 일반학교 ⑥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6.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경남형 학력관 정립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인쇄
2016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 선 준

기 획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안 태 환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 영 희

연구자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 김 성 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 이 경 주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류 영 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전 흥 표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641-825)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www.gerii.go.kr>
전 화: (055)269-0777
전 송: (055)269-0789

인 쇄

그라지에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http://ebook-lib.gerii.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
아이좋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